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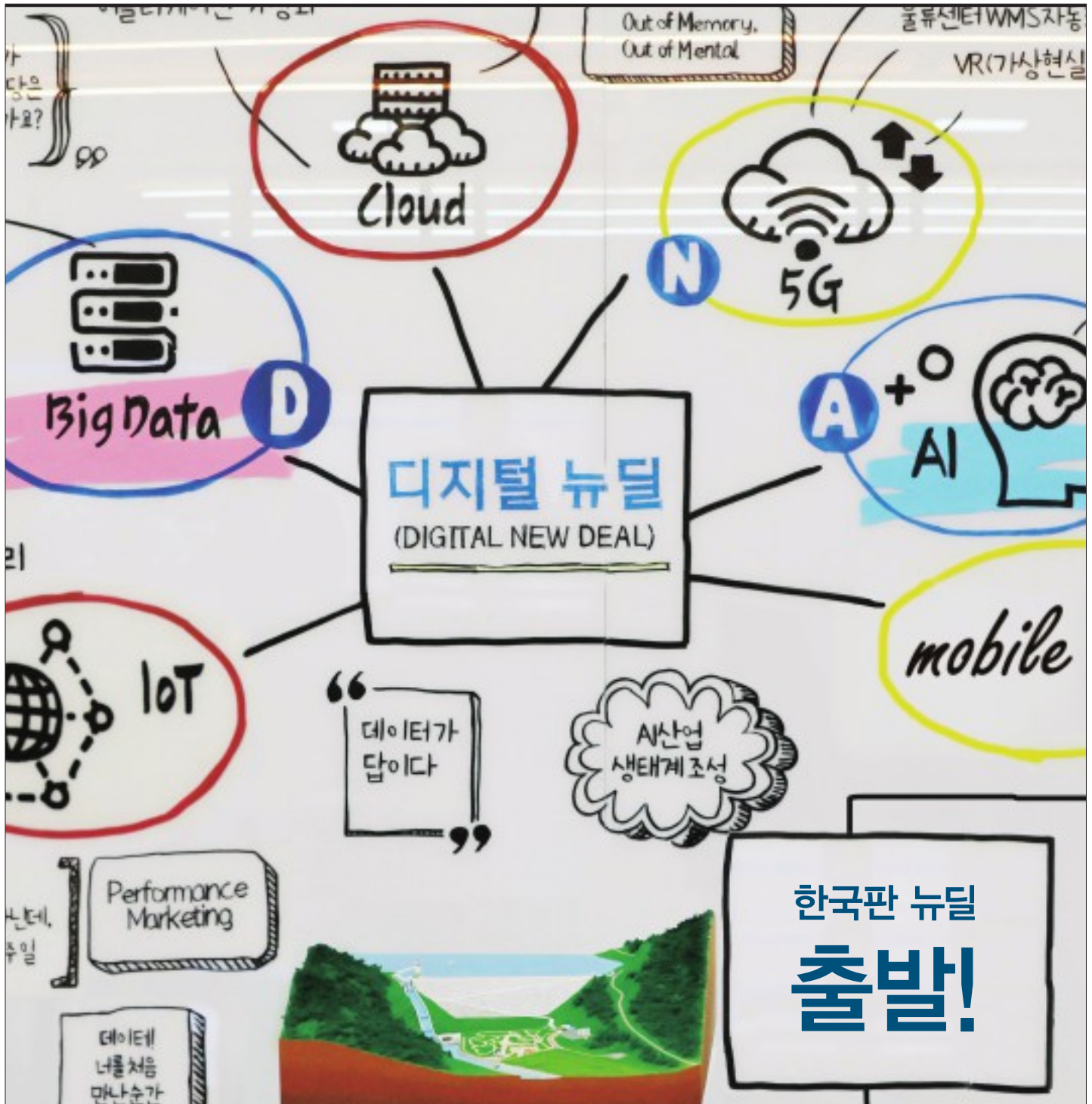
- 실거주 1주택자는 가중 세 부담 없어
-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차박'으로 치유한다
- 추경, 이렇게 쓰인다_ 기간산업안정자금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_ 복지·고용
- **특집_ 한국판 뉴딜 시동 걸었다**

gonggam.korea.kr

No.564

2020. 07.27~08.02

공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남 태안초등학교 전교생들이 7월 22일 교내 운동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 등 방역 관계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 연합

●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학교에 간다. 5월 말에 처음 등교했을 때는 한 반의 친구들이 모두 한 교실에 모여 수업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홀수 번호와 짝수 번호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요일에 등교하게 되었다.

짜깁 없이 한 줄로, 번호 순서대로 앉아 수업하는 교실에서 아이는 뒷자리 친구(짝수 번호)와 겨우 몇 마디 나누며 우정을 만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짝수 번호 친구와 이별하게 된 것이다. 그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했을 때 아이는 “왜?”라고 여러 번 물어봤고 울상이 된 채 “학교가 더 재미없어졌다”고 했다. “그럼 ○○이는 학교 안 와?” 하고 물어서 “이제 ○○이는 화요일에 학교 가는 거야”라고 하자 “너 무하네, 나쁘다” 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친구와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며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아이는 대체로 집에서 혼자 지낸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거나 심심하다고 온몸을 비틀며 집 안을 배회하는 일이 많다. 마스크를 쓰고 동네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근린공원에서 자전거도 타지만 어디에 가도 친구와 노는 일은 드물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의 나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나도 아이와 놀아주는 일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저 나이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하는데 싫어서 안타깝다.

그런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자 아이도 나름대로 혼자 노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시끄러워서 방문을 열어보면 장난감 칼을 들고 무술 연습을 한다며 땀을 뻘뻘 흘리고 혼자서 가상의 상대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수업 준비 때문에 식탁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조용해서 거실 쪽을 보니 색종이를 이어 붙인 뒤 그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무얼 만드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 나중에 슬쩍 보니 ‘캐릭터 설명서’라는 책을 만들고 있었다. 물론 몇 장 그리고 쓰다가 말았지만 아이는 무언가를 자꾸 시도해보았다.

어느 오후에는 무어라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아이가 장난감 기타를 어깨에 둘러멘 채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말도 안 되는 자작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자작곡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노래에서 시작해 아무렇게나 이어 붙인 노래로 넘어가는 식이었다. 연주에 심취한 얼굴로 기타 치는 흥내를 냈고 고개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멜로디도 변형해가면서 난나나, 랄랄라, 뚜뚜루 같은 후렴구를 만들어 반복해서 불렀다.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나는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집에 텔레비전도 없는데 아이는 어디에서 기타 치는 보컬리스트의 모습을 보았을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 상상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 일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 아이는 내가 보고 있는 데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얼굴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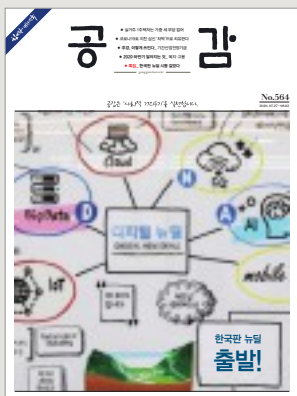
아이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건 가엾지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일찌 감치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친구가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들끓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과 단둘이 보내야 한다. 책을 읽고 어떤 인물과 문장에 빠지고, 음악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일을 겪은 뒤 무언가 그리고 싶거나 쓰는 방식으로 심정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 마음이 복잡할 때 혼자 산책을 하거나 사색하면서 가라앉히는 것.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인생을 꽤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데 주변에는 자신과 사이 좋게 지내는 법, 혼자 즐겁게 노는 법을 몰라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꽤 많다. 아이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 속에서 사이 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겠지만 순서가 좀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해본다. ⑦



서유미_ 소설가. 2007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 두 권의 소설집과 여섯 권의 장편소설을 냈다.

공감

No.564
2020. 07.27~08.02



표지이야기

한국판 뉴딜 출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서 미래형 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이다. 투입하는 재정투자 규모나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디지털 뉴딜 분야가 가장 크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적 파급 효과도 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2022년까지로 일정을 잡은 1단계와 2023~2025년의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공감 한 것

01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태안초 '덕분에 챌린지'

(共)공감

02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이번 주엔

06 한국 수채화의 과거·현재·미래 등

정책종합

08 "실거주 1주택자는 가중세 부담 없어
집값 9억 이하면 재산세만 소폭 인상"

10 카드뉴스/ 7·10 부동산 안정 보완대책

아하! 공감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0 세법개정안'

12 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래!만 늘어납니다

특집

한국판 뉴딜 시동 걸었다 ① 디지털 뉴딜

14 '디지털·그린' 끌고 '안전망 강화' 받치고

16 디지털 뉴딜이 저임금·초단기 일자리만 창출?

18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으려면...

힘내라 대한민국

20 코로나19 발생 6개월... "협력과 연대로 유행 통제"

34



26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46



58

50



홍화정 만화-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24 손수건과 친해지기

트렌드-지금엔 '차박' 시대

26 열심히 집콕한 당신 '차박'하라

30 '다닥다닥' 붙은 캠핑장이 꺼려진다면...

33 '야행'으로 쌓은 한여름 밤의 추억

연재/이길우의 사람, 삶 ㉓

오토캠핑 '진갑 여행'

34 '탁탁' 밤바다 때리는 모닥불 소리
그때 친구가 외쳤다, '불멍'하자고

내 삶과 문화

38 기고/ 코로나19 시대 위상 더 높아진 신한류

40 7월의 추천 도서

공감이 만난 사람

김상범 중앙대 체육대학장

42 "강압적 통제와 훈련량 늘리는 방식은 안 돼
인권·성적 위해서도 엘리트 장벽 허물어야"

기획-추경, 이렇게 쓰인다

46 ③ 기간산업안정기금
주력 산업 기초체력 키워 경제 주춧돌 지킨다

내 삶과 정책

50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복지·고용 분야

연재/미래이야기 15

56 오바마부터 빌 게이츠까지... 구멍 뚫린 트위터

연재/아하! 스포츠 12

58 K리그에 '괴물' 오세훈이 났다

연재/박인권의 '명화 다시보기' 27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60 그리스 최고 석학들의 '사상 경연장'

참여공감

공감(感)

64 소중한 사람

발행일 2020. 07. 27

발행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양우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제본 (주)다원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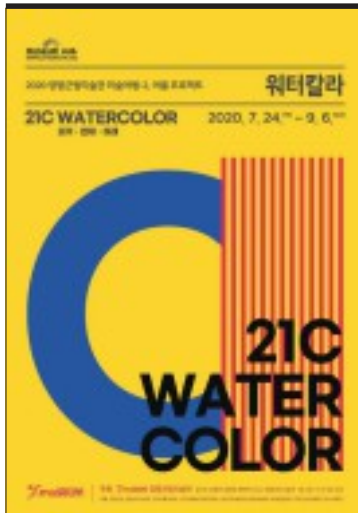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이번 주엔



한국 수채화의 과거·현재·미래

경기 양평군립미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 <21C WATERCOLOR(워터칼라)> 기획전을 개최한다. 온라인 영상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언제라도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한국 수채화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채화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간 9월 6일까지 °장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양평군립미술관, 누리집(www.ymuseum.org) °문의 031-775-0068



조선 후기 3대 명필 '창암'의 작품

전북 전주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을 주제로 <구름 가듯 물 흐르듯> 특별전을 연다. 창암은 추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힘이 없고 자연스러운, 이른바 '행운유수체'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이번 전시는 창암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서예 작품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암 서예관, 전북대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등 기관과 개인이 소장해온 창암의 서예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기간 9월 13일까지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9 전주역사박물관

°문의 063-228-6485



전시회로 만나는 웹툰 <유미의 세포들>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네이버 웹툰에 2015년부터 연재 중인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은 현재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에 이르는 인기작이다. 30대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일상과 연애 이야기를 그의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그림, 영상, 음악, 설치,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 '유미의 세포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기간 2021년 3월 14일까지

°장소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6길 18-8
그라운드시소 서촌

°문의 070-4473-9746



현대인을 위한 치유 미술 전시 <여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할 위로의 미술 전시가 열린다. 이번 그룹 전시 <여행>에는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김보하, 마음터치 우주, 노현우, 안소현, 엄소완, 정일모, 홍성준 등 7인의 신진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이 여행을 통해 경험한 여러 감성을 녹여낸 회화와 사진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기간 8월 7일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4길 13 갤러리아 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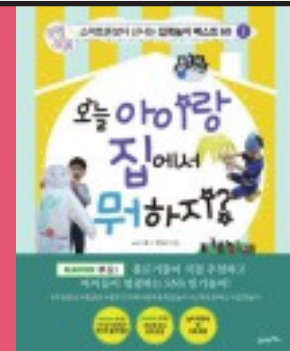
°문의 02-545-3945



독립운동가 이교재 선생의 임시정부 위임장

경남 창원 마산립박물관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교재 선생 특별전을 연다. 유족이 마산박물관에 소장을 위탁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檄發)을 비롯해 이교재 선생과 관련된 3·1운동, 임시정부 자료를 전시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은 이교재 선생이 중국 상하이임시정부를 방문해 국내에 들어온 문서다. 이교재를 경상남도 상주(常駐) 대표로 임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문화재청은 2020년 2월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기간 9월 6일까지 °장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마산립박물관 °문의 055-225-7171



‘옷칠 본고장’ 통영서 만나는 옷칠과 나전

통영의 옷칠공예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 유일의 옷칠 작품 전문 전시관인 경남 통영옷칠미술관은 〈천 년을 잇는 옷칠과 나전 작품전〉을 연다. 우리나라 옷칠·나전을 대표하는 작가 9명이 창작한 작품 26점을 전시한다. 통영옷칠미술관 설립자이자 현대 옷칠 예술 선구자로 꼽히는 김성수 등 2명을 제외한 7명은 나전칠기, 옷칠 등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다.

°기간 10월 18일까지

°장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6
통영옷칠미술관

°문의 055-649-5257

랜선으로 열리는 봉화은어축제

경북 봉화군은 제22회 은어축제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축제로 연다. 반두잡이나 맨손잡이 체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온라인 축제는 전용 유튜브 채널,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은어를 부탁해’ 프로그램, 은어 레시피 콘테스트, 장릉 속 영상물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간 8월 1~9일

°장소 봉화은어축제 누리집
(www.bonghwafestival.com/euneh)

°문의 054-679-6341~3

오늘 아이랑 집에서 뭐 하지?

평범한 우리 집이 키즈 카페로 변신한다! 〈오늘 아이랑 집에서 뭐 하지?〉는 네이버 블로거 60명이 직접 검증한 ‘스마트폰보다 신나는 집콕놀이’를 소개한다. 집에 있는 옷걸이가 신나는 농구 코트가 되고, 다 쓴 젓병 세척 솔이 우리 집을 장난감 자동차 세차장으로 만들어 준다. 각 장마다 소개된 블로거들의 한 줄 후기와 각종 팁으로 놀이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다.

강민진 기자

°지음 21세기북스 편집부

°펴냄 21세기북스

“실거주 1주택자는 가중 세 부담 없어 집값 9억 이하면 재산세만 소폭 인상”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18일 “증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7·10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증과세한다는 것이다.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

체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인상 대상 전체 인구의 0.4%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인상은 2019년 12·16대책 때 발표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2020년과 2021년 보유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주택가액별로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은 집값이 오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2020년 시가 15억 8000만 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없다고 가정)는 390만 원 정

1주택자 보유세 계산 사례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

서울 A 주택	2019년 6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시가	6억 8000만	7억 9000만	9억
공시가격	4억 8000만	5억 5000만	6억 3000만
보유세 (전년 대비 상승률)	104만 640원	114만 4704원 (10%)	148만 3344원 (29%)

서울 B 주택	2019년 6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시가	13억 5000만	15억 8000만	18억
공시가격	9억 4000만	11억	13억 5000만
보유세 (전년 대비 상승률)	285만 6438원	389만 7600원 (36.4%)	641만 8800원 (64.7%)
종부세 공제 없음			
종부세 최대 공제	277만 9397원	350만 4480원 (26.1%)	469만 6560원 (34%)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

7·10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

도지만 2021년 집값이 18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642만 원 정도로 2020년보다 64.7% 늘어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최대한 적용받으면 2021년 중부세는 470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결국 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같은 가격 주택이라도 세액 차이가 커지는 셈이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데도 최근 고지된 2020년 주택분 재산세가 많다고 느끼는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르는 동시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였다. 정부는 “재산세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시세 9억 원 이하,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했으면 양도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7·10 부동산 대책	추진	제외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당정 추가 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택지 활용)		✗
정부 소유 부지 활용	✓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에 유입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간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진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로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⑦

김정연 기자

7-10 부동산 인형 보원대희

Q 이것이 궁금하다 ①
1주택자 실거주자도 종부세 폭탄인가요?

A 아닙니다
과세대상 9억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 기준: 10년 이상, 고령자 기준: 65세 이상

<고가 1주택 보유 종부세 예시>

	10년 보유 65세		3년 보유 58세	
	20년	21년	20년	21년
시세	38억원	40억원	38억원	40억원
공시가격	31억원	34억원	31억원	34억원
종부세액	756만원	882만원	1892만원	2940만원
증가액	126만원		1048만원	

1

7-10 부동산 인형 보원대희

Q 이것이 궁금하다 ②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폭탄인가요?

A 아닙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개정
8~12.2억	0.5	0.6	0.6	1.2
12.2~15.4억	0.7	0.8	0.9	1.6
15.4~23.3억	1.0	1.2	1.3	2.2
23.3~48억	1.4	1.6	1.6	3.6

2

7-10 부동산 인형 보원대희

Q 이것이 궁금하다 ③
거래세 높여놓고 다주택자 집 팔라고요?

A 아닙니다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부터 적용,
그 이전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인상 효과가 집중돼,
일반 거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7-10 부동산안정 방안대책

Q 이것이 궁금하다 ④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커지나요?

A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 1주택 실수요자
주택 거래 시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거래 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양도세 부담 변동 예시>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5억 원인 주택

	2년 미만 보유 A씨		3년 보유 B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양도세	1억 7350만원	2억 9850만원	5907만원	
증가액	1억 2490만원	변동 없음		

4

7-10 부동산안정 방안대책

Q 이것이 궁금하다 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양도는 매매차익이 생기지만
증여는 자산만 이전되고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차이 예시>

시가 20억원 양도차익 8억원	양도세	증여세
	3억~5.4억원	6억4천만원

5

7-10 부동산안정 방안대책

대한민국정부

Q 이것이 궁금하다 ⑥
세 부담 증가 때문에
전체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에 한정되므로
전체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가 주택의 약 1.6%

6

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만' 늘어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죠.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에는 이렇게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세법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세법개정안 가운데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아하! 공감>이 정리해봤습니다. 김청연 기자



직장인이 특히 반길 내용은 뭔가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자 2020년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2020년) 상황

자료: 기획재정부

총급여 기준	원형	개정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 2년 연장



자동차 구입을 고민한다면요?

최근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죠. 이 같은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꿀정보’는 없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월 1000만 원+2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한편,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ISA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폐지하는 등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오른다고요?

2021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소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릅니다. 관련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mL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조정한 세율입니다. 2019년 신종 담배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적정 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들이라면요?

앞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 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이나 지방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사실상 증세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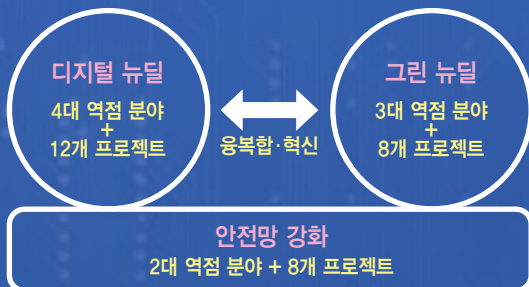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 부담이 1조 8760억 원 늘어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676억 원(순액법 기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기준연도(2020년) 대비 기준(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5년간 4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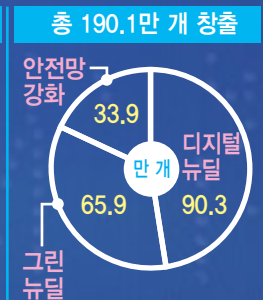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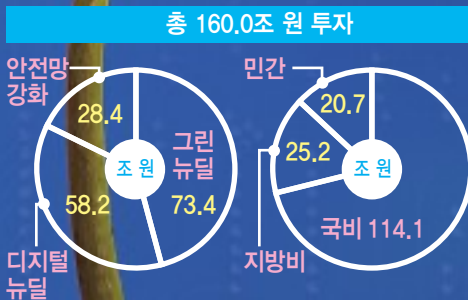
‘디지털·그린’ 뉴딜 끌고 ‘안전망 강화’ 받치고 한국판 뉴딜 시동 걸었다

💡 한국판 뉴딜의 구조
9대 역점 분야 + 28개 프로젝트



💰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 2025년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8개 분야로 나뉜 이 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다. 우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1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2차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까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정부는 5년간 28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33만 9000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적 성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서 미래형 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이다. 투입하는 재정투자 규모나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디지털 뉴딜 분야가 가장 많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2022년까지로 일정을 잡은 1단계와 2023~2025년의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의 1단계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의 12개 중점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그동안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업계 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엄선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와 기대 효과, 소요 자원 등이 비교적 명확하다. 1단계 디지털 뉴딜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조 7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치는 33만 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자칫 포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는 소수와 배제되는 다수가 나누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취약계층일수록 접근성을 더 높여주고 일상생활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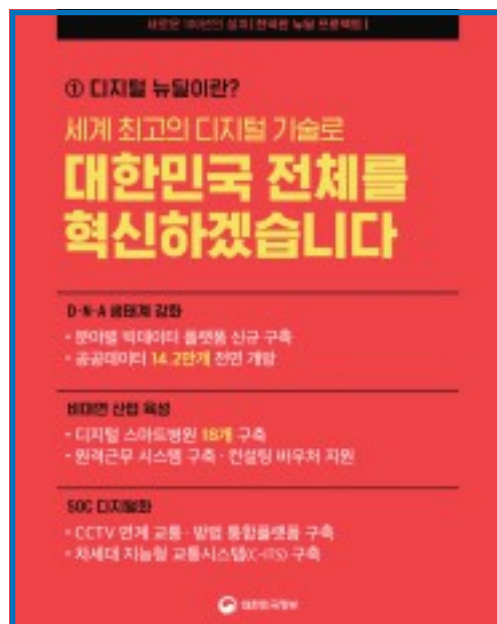
박순빈 기자

디지털 뉴딜이 저임금·초단기 일자리만 창출?

일문일답

① 디지털 뉴딜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구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3회에 걸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한국판 뉴딜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 경제 패러다임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재탕이 아닌가?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다만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는 점이 차이다. 다시 말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경제 가속화와 비대면 활동 급증 등 전례 없는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반면, 혁신성장은 잠재성장을 저하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중심의 포용 가치 기반인 '안전망 강화'로, 경제·사회 구조의 총체적 대전환을 이루는 국가 프로젝트이자 미래 비전이라는 점에서 더 포용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뉴딜이 인공지능 전략 재탕이라고?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등에 포함된 내용을 '디지털 뉴딜'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은 아닌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며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디지털 뉴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선점 투자이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 계획과 필연적으로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중장기

디지털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선점 투자이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2~3년 안에 집중 실행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을 2~3년 안에 집중 실행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디지털 뉴딜과 일자리 창출이 병행 가능한 개념인가?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미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리 다가온 측면이 있다.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오프라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다양한 데이터 수집·가공은 별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며, 기존 오프라인 종사자들이 이런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교육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 같은 일자리도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디지털 뉴딜로 창출되는 데이터 분야 일자리가 저임금, 초단기, 저급의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데이터 수집·구축 관련 사업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데이터 정제·가공 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특히 단기 교육 후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 노하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난도 높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 데이터 가공 인력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비대면 의료는 의료민영화 등과 무관

-비대면 의료 육성은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가?

=비대면 의료는 감염병 대응,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국민 편의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 ▲의료진·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 편의 관련해선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 취약지 거주자 접근성 제고 ▲만성질환자 등 진료 편의 제고가 핵심으로 의료민영화 등 공공의료체계 쟁점과는 무관하다. 비대면 의료는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고려해 한국판 뉴딜에서는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건강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환자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 병원을 18곳 구축했다. 또한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100개 설치했다. 여기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확대, 웨어러블(입는) 기기 보급 등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서 비대면 의료 제도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환자 보호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책임 문제 명확화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의료편의 제고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박순빈 기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으려면...

기고

디지털 뉴딜이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에게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고 힘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세대에도 희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그 힘든 시기에 6400억 원을 투입해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전자도서관 구축 등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해 디지털화를 5년 이상 앞당겼으며 39만여 명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과감한 투자로 현재의 우리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생태계 구축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고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융합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N·A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생활과 기업 환경은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AI 융합을 통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며, 비대면 의료가 본격 도입되면 상시 건강관리나 가정에서 편리한 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치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자 추적이나 검거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축사업은 실직 또는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공장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본의 소재·장비, 한국의 중간재, 중국의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인공지능 접목의 효과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 생산과정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D·N·A 생태계 구축사업 외에도 코로나 시대의 장기화에 대비해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디지털 뉴딜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의 근간인 도로, 도시, 산업단지,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를 조성하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입시제도, 대학 구조조정 등 제도적 혁신과 함께 추진되면, 미래 세대의 역량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시대에 겪는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 서비스의 발전이다. 이제는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과 공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 쇼핑 등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한다면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재정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디지털 뉴딜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의 근간인 도로, 도시, 산업단지,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SOC의 디지털화는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지만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고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뉴딜 사업은 큰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중단되거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없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실, 고용과 경제 활성화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고난도의 정책 목표다. 디지털 뉴딜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추진하는 비대면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제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한다. 댐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이 잘 활용하게 하려면 데이터의 종류와 이용 방식은 민간의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 뉴딜에 참여한 인력이 창업 생태계에 합류하거나 사업 참여기업에 장기 고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데이터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코로나19 발생 6개월... “협력과 연대로 유행 통제”

정부 대책 종합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국민의 협조로 유행을 통제했다면서 앞으로 중환자 대응역량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 본부장은 7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의 국내 현황과 대응 경과를 되짚으며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지난 6개월간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국민의 협력과 연대로 유행을 통제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유입 차단 조치로 강화된 검역조사와 특별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입국자 관리도 주요 조치로 꼽았다. 환자 치료 및 관리 조치로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전담병원·권역별 대응체계 등 다층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정착 노력으로 일상과 방역을 균형 있게 접목해 생활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며 “국무총리 지휘 아래 관계부처,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공동 대응해 오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의료 및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천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중환자 대응역량,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목표는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시

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통제해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해결 과제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노력과 더불어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외에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사각지대 발굴... 취약시설 점검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측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11개 분야의 시설을 점검해 이 중 7개 분야는 이미 지침을 마련하고 전수 점검 중이며 4개 분야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 해외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외국인 밀집시설·인력시장·소공연장·육가공업체 등 네 종류의 시설을 점검했다. 또 탁구장·배드민턴장 등 국내 감염 사례를 참고해 볼링장과 당구장을 점검했으며, 자체적으로 쪽방촌·고시원·건설현장 식당·고속도로 휴게소 등 네 종류의 시설을 발굴했고 안전신고를 통해 유도장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와 기저 질환자로 거주지 소독, 발열 체크, 방역물품 지원 등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시원은 방문자 관리와



7월 22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모래 조각 전시와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 5개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7월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국민의 협력과 연대로 유행을 통제해 왔다고 생각한다.”

발열 체크 등이 없었고 공동시설 소독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쪽방촌·고시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악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거주지에 시설당 10~20명이 집단 거주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우려됐으며,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아 신분 확인으로 인한 도피 우려 등으로 역학조사 등에 취약했다. 이에 법무부·고용부·지자체 등은 전국 (일명) 별집촌 합동점검과 방역물품을 지원 중이고, 고용부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자격 체류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식당 등을 함께 이용했으나 마주보기 식사와 식탁 소독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으며, 소공연장은 함성 유도 등의 비말 확산 위

험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해 위험한 분야는 방역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운영 재개

7월 2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수도권 소재의 10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했다.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도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25일), 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8월 1~2일), 국립합창단 ‘광복절 기념 합창 축제’(8월 14~15일)를 시작으로 공연을 재개한다. 운영을 다



코로나19로 5월 2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 22일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행 방안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했다. | 한겨레

시 시작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물 소독 및 사전예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 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5월 29일 오후 6시부터 중단했던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3개(과천·서울·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2개(본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10개다.

다만,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라 이번 개관은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을 적용한다.

특히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서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공연장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관객 최대 50%로 제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마다 이용 방법과 제한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사전에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에서 이용 방법, 예약제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국립문화예술시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 강화, 예약제 운영을 통한 인원 제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도 7월 24일부터 해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

7월 2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수도권 소재의 10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시설물 소독 및 사전예약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운영을 재개했다.

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청사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허용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 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 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중합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도시가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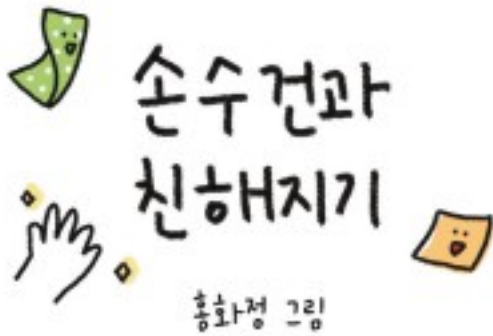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설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설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게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김청연 기자

고민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힌 책을 읽다



손수건의 활용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사는데 1등인 사람)



색색의 손수건들을 구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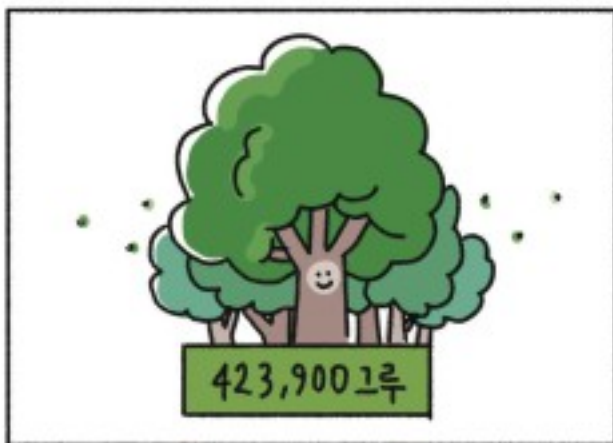
곧바로 가방에 넣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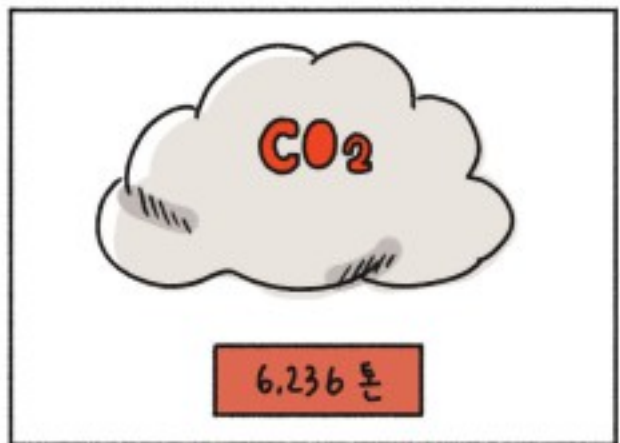
어찌된 건지 매일 깜빡하는 게 일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손수건을 사용하면



매년 전세계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고



수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깜빡하곤 하지만



자연스레 일상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사용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열심히 집콕한 당신 차박하라

코로나19 시대 '차박' 체험기

#1 “큰 차만 차박을 할 수 있다는 건 편견이다. 시트를 접으면 성인 두 명까지 누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완성된다.”

—경차 '차박인' 김소희(34) 씨

#2 “차박의 기본인 평탄화 작업과 수납공간까지 마련한다면 완벽한 미니 캠핑카로 탈바꿈된다.”

—소형 SUV '차박인' 박정현(26) 씨

#3 “최근 우정 여행을 주제로 파티용품을 가득 싣고 차박을 떠났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여행이 되었다.”

—경차 '차박인' 이재영(42) 씨

비대면 여행 확산 '차박' 이용자 크게 늘어

'차박'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데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여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박은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으로, 자동차로 이동해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오토캠핑'과는 다르다. 차박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차박캠핑클럽' 운영자 '둥이아빠'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카페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9476명) 대비 5배 수준인 4만 6877명이다.

차박용품 수요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텐트 및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 폴라리스 관계자는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텐트는 원터치, 돔 텐트, 차박 텐트 등 종류를 막론하고 다 팔린 제품이 속출하고 있으며 탁자, 의자, 자충매트 등도 재입고 후 불과 1~2주 만에 모두 팔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텐트 등 장비를 이것저것 구매하느니 아예 차량을 캠핑용으로 바꾸는 사람들

1 태양열에 눈을 뜬 아내와 아이를 위해 준비해 온 그늘막을 꺼내 그늘을 만들었다. 2 날이 밝자 트렁크 너머로 파란 바다가 보였다. | 김성원

2

‘차박’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데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여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늘고 있다. 한 캠핑카 개조(튜닝)업체 대표는 “(캠핑 차량 개조가) 30~50% 늘었고 문의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꺼리면서 실내 숙박 대신 캠핑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차박 문화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엔 낚시인이나 등산객이 한밤에 차에서 쪽잠을 자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오토캠핑에서 간소한 차박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최근엔 차박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동이아빠’는 “요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차박하면서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라며 “오토캠핑과 달리 많은 짐이 필요 없고 기동성이 좋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소 등의 절감 비용으로 주변 상권을 이용한 맛 기행도 차박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이라고 말했다.

요즘 ‘차박인(차박하는 사람)’들은 캠핑 하면 떠오르는 ‘불편함’

을 감수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편안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즐긴다. 차박 마니아들은 “오토캠핑보다 간소한 만큼 적합한 장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6월에 가족과 함께 첫 차박을 떠난 김성원(41) 씨도 그중 하나다. 10여 년 전 캠핑에 입문한 그는 최근 차박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공감>이 김성원 씨의 차박 체험기를 들어봤다.

‘차박만을 위한 아이템’ 준비하기

“내일 퇴근 후 차박 캠핑하러 갈까?” 김 씨의 첫 차박 여행은 목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 오랜 시간 ‘캠핑광’이었던 그는 최근 차박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다다다’ 붙어 있는 캠핑장은 웬지 꺼려졌다. 가족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는 10여 년의 캠핑 내공에 ‘차박만을 위한 아이템’이 필요했다. 카페에 가입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수백 개의 관련 정

보를 훑었다. 차박을 경험한 지인들에게 주의사항도 꼼꼼히 물었다. 준비 과정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가족에게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의 즉흥 제안에 동갑내기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라도 흔쾌히 따라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목적지는 강원도 해변으로 정했다.

차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이 있다. 우선 평탄화 작업(차 안을 침대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요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은 의자를 접으면 누워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 운전석(1열)과 뒷좌석(2열)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는 것이 팁이다. 뒷좌석을 앞으로 옮기면 트렁크와 사이에 공간이 확보된다. 이곳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에어매트나 발포매트를 깔면 된다. 주의할 점은 짐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잠자리를 마련할 때 짐을 놓을 데가 없어진다. 차 밖에 두면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게 중요하다.

여름철 차박을 할 때는 특히 벌레 차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 모기 등 벌레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문에 끼울 수 있는 모기장과 트렁크 크기에 맞는 차박용 텐트를 준비하면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기 향이나 전자 파리채로 벌레를 정리하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숙박이 해결됐다면 휴식과 식사, 세면을 위한 용품도 챙겨야 한

다. 그늘막(미니 타프)과 의자(릴렉스 체어 또는 에어 체어), 탁자, 코펠, 버너, 샤워텐트를 ‘경량형’으로 준비한다. 날씨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계획한 주제에 맞는 대략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면 된다. “차박의 수많은 매력 가운데 하나가 상황에 맞는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출이 멋진 바다, 숲이 우거진 산, 시원한 계곡, 별이 많은 곳...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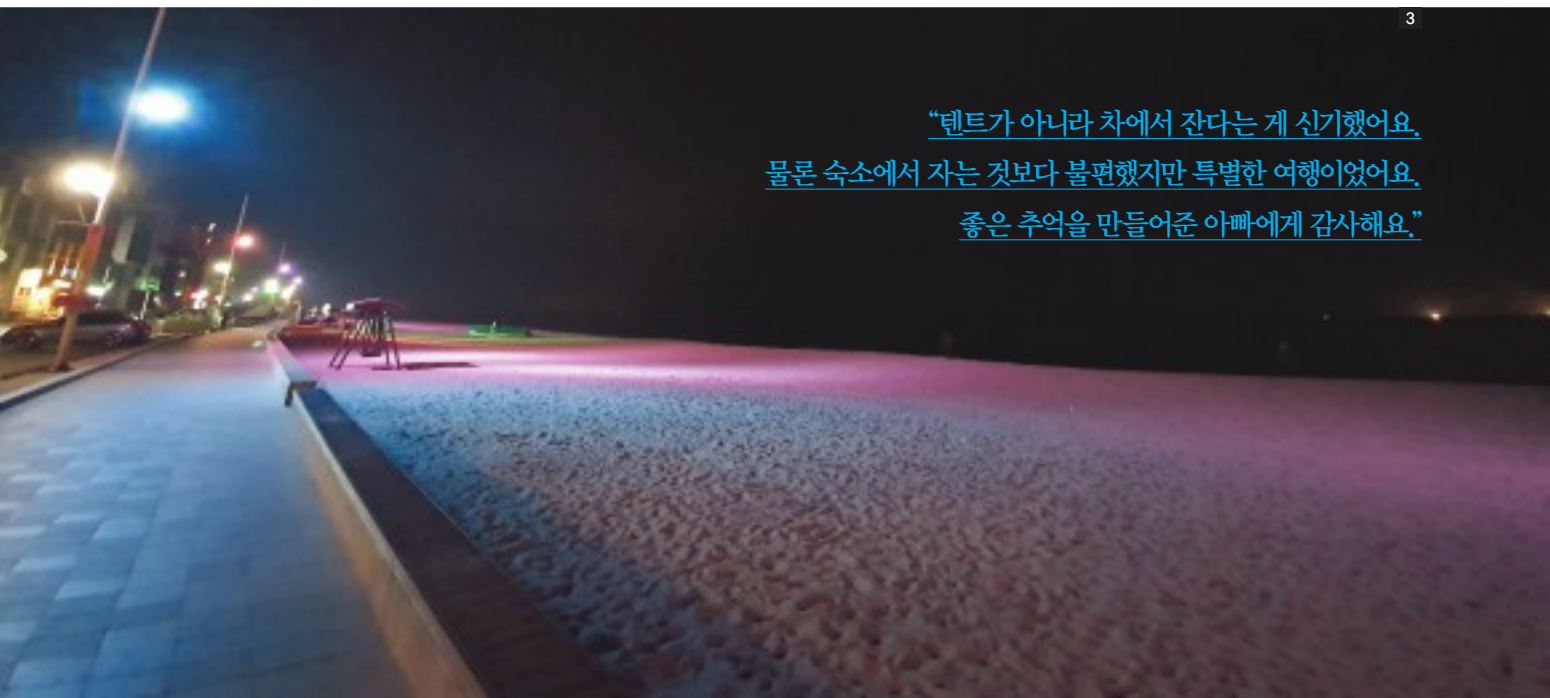
철수 쉽고, 기동성 좋아 어디든 ‘고고’

세 식구의 첫 차박 장소는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이었다. 차박 장소로 유명해 많은 ‘차박인’이 몰리지만 공간이 넓어 자리를 잡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도착 직후 아내와 아이는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파악하러 나섰고 김 씨는 차박 세팅을 시작했다.

가져간 필수 아이템으로 완벽한 잠자리를 마련하고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됐다. 이내 세 식구는 폭신한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해변은 아늑하고 파도 소리는 포근했다. 날이 밝자 트렁크 너머로 파란 바다가 보였다. 나무 그늘이 있는 해변이 아니기 때문에 곧 태양이 뜨겁게 내리쬘었다. 열기에 눈을 뜬 아내와 아이를 위해 준비해온 그늘막을 꺼내 그늘을 만들었다.

안목해변 주변은 편의시설이 많아 커피와 케이크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선물 같았다. “이제 어디 갈까?” 해변을 한 바퀴 돌며 다음 여행지로 향할 준비를 했다. 텐트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철수도 쉽고, 기동성이 좋

“텐트가 아니라 차에서 잔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했지만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아빠에게 감사해요.”





3 세 식구의 첫 차박 장소는 강원도 강릉 안목 해변이었다. 4 안목해변 주변은 편의시설이 많아 커피와 케이크로 아침 식사를 했다. | 김성원

4

아 바로 어디든 떠날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강릉 중앙시장으로 정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면 현지 시장에 들러 장을 보거나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 이날도 줄을 서서 유명한 닭강정과 호떡, 아이스크림 등을 아이와 함께 사 먹으며 시장 곳곳을 구경했다.” 이후 20분 거리에 있는 막국숫집에서 시원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30분 정도 달려 망상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신혼 때 아내와 캠핑의 추억이 깃든 장소라 아이와도 함께 와 보고 싶었다. 바닷가에서 아내와 아이는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는 그늘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잠깐의 여유를 뒤로하고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속초에 들러 저녁 먹고 집으로 갈까?” 바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워 잠깐 고민하는 사이 아내가 주차장에서 삼척 촛대바위 안내판을 발견했다.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로 유명한 그 촛대바위였다. ‘또 언제 오겠어’ 하는 생각에 목적지를 바꿔 삼척으로 출발했다. “차박은 상황에 맞게 목적지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차를 달리다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목적지로 정하면 된다. 차박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달리다 좋은 곳 있으면 그곳이 목적지”

망상해수욕장에서 차로 30분을 달려 삼척 촛대바위 주차장에 도착했다. 청량하고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었다. 여행의 피로도 바닷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애국가 자로화면에서만 보던 촛대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함께 어우러진 푸른 바다, 그리고 시원

한 바람을 맞으니 이번 여행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딱 채운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첫 차박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했다. 특히 아이가 어떤 ‘감상평’을 내놓을지 기대됐다.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즐거웠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학교에서 쓴 감사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텐트가 아니라 차에서 잔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했지만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아빠에게 감사해요.”

초보 캠퍼였던 10여 년 전 김 씨는 아내와 둘이서 더위를 피해 해변에 조그만 텐트를 치고 하루 바람 쐬고 오는 식으로 휴가를 보냈다. 그마저도 캠핑 초보의 미숙함으로 ‘사서 고생’을 했다. 별레의 공격은 물론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요즘처럼 캠핑 장비도 다양하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다.

시행착오 끝에 10여 년 사이 자동차도 세단에서 SUV로, 텐트도 네 번 정도 바꾸면서 자신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아갔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캠핑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기 위해 차박 여행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첫 차박을 통해 여유롭게 편히 쉬다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 다시 떠올려봐도 잊을 수 없는 여행이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차박 캠핑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주 바로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

강민진 기자

‘다닥다닥’ 붙은 캠핑장이 꺼려진다면...

안전성·편의성 갖춘 ‘차박 명소’ 6곳

‘#차박추천장소 #차박캠핑장추천 #바다차박...’ 캠핑 열풍과 맞물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차박’ 장소와 관련한 해시태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입소문과 달리 실제 차박이 가능한 곳은 흔치 않다. 전용 캠핑장이 아니므로 개수대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곳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차박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차박을 준비하는 ‘캠린이(캠핑+어린이, 캠핑 초보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들을 위해 준비했다. 멋진 풍경은 물론 안전성과 편의성까지 갖춘 ‘차박 명소’ 여섯 곳을 꼽아봤다.

장민진 기자



어비계곡

어비계곡의 길이는 양평군 옥천면에서 시작해 약 3km에 이른다. 어비(漁飛)는 예부터 홍수 때 물고기가 산을 뛰어넘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어비계곡과 유명산계곡이 만나는 곳의 합소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어비계곡을 따라서 여러 캠핑장과 산장이 들어서 있다. ‘차박’ 장소로는 이들 캠핑장이나 산장을 추천한다. 어비계곡은 대부분의 구간이 계곡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 중간쯤에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다리 주변은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다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경치를 즐기며 쉬었다 가기 좋다. 어비계곡 입구의 문화마을에는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 아이들과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시원한 계곡물에서 송어와 산천어, 메기 등을 만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주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순긋 해변

순긋해변은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사랑받는 여행지다. 유명한 경포해수욕장의 북쪽에 있으며 백사장 길이가 200m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해변이다. 무거운 텐트나 캠핑용품 없이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으로 해변에서 일출, 일몰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 해변이 넓지 않은 편이라 일찍 가는 게 좋다. 이곳은 강릉 유명 관광지인 안목해변 커피거리, 초당 순두부 마을, 중앙시장과도 가까워 캠핑과 도시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주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 682-5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전국 제일의 천연 활엽수림과 희귀 수목인 주목, 구상나무, 마가목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가리왕산은 등산객들의 지상낙원이다. 회동계곡에서 들려오는 청명한 물소리에 눈과 귀가 모두 맑아진다. 휴양림 안에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체험관이 조성돼 있어 교육 현장으로도 손색없다.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이용 시 예약은 필수! 예약은 '숲나들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추천제 등 예약 방식에 따라 정책이 다르니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국립공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방문 계획이 있다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로 707





구름포 해변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는 구름포해수욕장은 가족 휴양지로 적합한 곳이다. 해안선 길이가 짧고 아담한 반면, 모래사장은 넓은 편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금이 이곳을 방문할 적기다. 낚시터로 유명하니 야영장에 터를 잡고 온 가족이 낚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캠핑장 인근의 가볼 만한 곳으로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등이 있다.

주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백길 해변 캠핑장

백길해수욕장은 목포항에서 41.3km 떨어진 자은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한적한 해변이다. 인적이 드물고 3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기 좋다. 해변 주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해 야영하기에 제격이며, 인근 갯바위 낚시터에서 월척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주소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229



나정고운모래해변

잔잔한 파도가 육지에 도달하면 보드라운 모래와 부딪혀 아름다운 포말을 그려낸다. 자갈 해변이 많은 경주 동해에서 모래가 고운 곳이라 '나정고운모래해변'이라 불리는 바다가 있다. 나정고운모래해변이 '차박 성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해변 바로 앞에 조성된 드넓은 주차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또 바로 인근에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있고, 잘 관리된 공중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다. 그만큼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다는 얘기다. 널찍한 공간에서 각자 일정 거리를 두고, 여유로운 차박 캠핑을 즐겨보자. ㉗

주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915

참고 경주문화관광, 경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포스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캠핑장 이용 시 안전여행 가이드

- 손 소독제 상시 휴대 및 물건 접촉 전후 사용
- 가족·친구끼리도 개인 컵과 수저 등 구분해서 사용
- 관리사무소·매점·개수대·화장실·샤워장 등 공용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텐트 설치 시 다른 텐트와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유지
- 텐트나 캠핑가 등 실내 수시 환기



충남 부여 >> 공남지·정림사지

부여 공남지와 정림사지는 백제 문화의 세련미와 애잔함이 가득한 야경 여행지다. 공남지(사적 제135호)는 백제 왕실의 별궁 연못이다. 밤이면 다리와 포룡정에 들어온 조명이 물에 비쳐 반짝반짝 빛난다. 정림사지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6~10시다. 공남지에서 걸어가면 10분 남짓, 차를 타면 5분 거리다. 보름달과 어우러진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우주와 소통하는 듯 신비롭다.

7월의 추천 캠핑장 5곳

한국관광공사 캠핑 정보 누리집 '고캠핑'(www.gocamping.or.kr)은 7월의 추천 캠핑장 주제로 '야간여행 명소' 다섯 곳을 선정했다. △충남 부여 공남지와 정림사지 △전남 강진 나이트드림 △경북 안동 월영교와 낙동강 음악분수 △경기 수원 화성행궁 야행이 그 곳이다.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야간여행 명소를 둘러본 뒤 인근 캠핑장에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강민진 기자



경북 안동 >> 월영교·낙동강 음악분수

월영교 야경은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근사하다. 다리 내부에 조명이 들어와 밖에서 보는 풍경과 분위기가 다르다. 포근한 조명과 시원한 강바람이 여름밤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월영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낙동강 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져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음악의 비트에 따라 솟구치듯, 잔잔하게 춤추는 물줄기가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든다.

'야행'으로 쌓은 한여름 밤의 추억



전남 강진 >> 나이트드림

나이트드림은 강진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다. 낮과 다른 매력을 뽐내는 강진의 인기 여행지를 둘러보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나이트드림은 뜨거운 여름밤이 시작되는 6월부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2020년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 >> 밤바다 야경투어

미항(美港) 통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경 여행지다.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섬과 화려한 조명을 담아낸 호수 같은 바다가 답답한 도시에서 온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멋진 보트를 타고 밤바다를 돌아보는 '통영 밤바다 야경투어'는 낮보다 아름다운 통영의 밤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택이다.



경기 수원 >> 화성행궁 야행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특별한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수원 화성행궁(사적 제478호)으로 떠나자.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궁궐을 걷다 보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이 새록새록 쌓인다. ㉠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등록 캠핑장 2400여 곳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캠핑장의 운영 형태, 입지, 주요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주변 환경 및 연계 관광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주변의 캠핑장 검색도 가능하다.

선정된 야간여행 명소와 주변 캠핑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캠핑 정보 누리집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한국관광공사 캠핑 정보 누리집 '고캠핑'



우구치 계곡의 오토캠핑장

‘탁탁’ 밤바다 때리는 모닥불 소리

그때 친구가 외쳤다, ‘불멍’하자고

“불멍하자.”

앵! 뭐지?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친구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찌그러진 빈 페인트 통을 꺼낸다. 그리고 송곳으로 통 사방에 바람 구멍을 내기 시작한다. 손놀림이 익숙하다. 오랜 기간 캠핑을 해온 친구라 믿음이 간다. 파도 소리가 정겹다. 얼마 만의 캠핑인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캠핑’(자동차로 이동해 텐트를 치고 즐기는 야영으로, 텐트를 치지 않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차박’과는 차이가 있다)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도 맛보기로 했다. 이름 하여 ‘진갑 여행’. 고등학교 시절 봉사 서클 활동을 함께하던 친구들이다. 대부분 1959년생, 2019년 환갑 기념으로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고교 졸업 후 모두 다른 대학을 다니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한 친구들이다. 환갑 다음 해 진갑(進甲) 여행이라고 ‘꼰대스럽게’ 이름 붙여 동해안에 온 것이다. 마침 한 친구가 최근 중고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해 그 차로 오토캠핑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 다시 한 살이다. 새로운 60년을 향해 건강하고 열심히 살

자꾸나.” 그런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함께 서울에서 차를 타고 동해안 노봉해수욕장에 왔다. 7월 3일이다.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아 인적이 드물다. 오토캠핑장을 예약하기로 했던 친구는 이미 석 달 전 예약이 끝난 상태라 난감해하다 노봉해수욕장을 찾아냈다. 전국 대부분의 오토캠핑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한두 개의 텐트가 눈에 띄는 한적하다.

해안가 나무숲에 차 대고 텐트 치기

오전에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은 처음 경험하는 오토캠핑에 마음이 설렌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고교 시절 좋아했던 여학생 이야기, 골치 아픈 자식들 이야기, 무서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 등 ‘아재’들의 수다가 깔깔대며 계속 이어진다. 강릉 중앙시장에 도착해 회 한 점시에 매운탕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시장을 보았다.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는 친구와 대충 사자는 친구가 티격태격 다룬다.

마음이 급해진다. 왜냐하면 대형 텐트를 쳐야 했기 때문이다. 차



1 보름달이 비치는 여름밤에 진실 게임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2 모닥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멍 때리는 '불멍'은 오토캠핑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3 진갑 여행을 기념하는 사진



빈 페인트 통에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피운다. 모닥불은 모두를 침잠하게 만든다. 나뭇가지가 타는 '딱딱' 소리만 날 뿐 사방이 조용하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모닥불을 보며 멍 때리는 것이 '불멍'임을...





뒤 트렁크와 연결해서 널찍한 텐트를 쳐야 하는데 그 텐트를 가져온 친구도 한 번도 쳐본 일 없다고 한다. 새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도 경험이 없다고 한다. 불안하다. 날이 점차 어두워진다. 대부분 현역 군복무를 했기에 옛 경험을 살리면 기본은 할 것이라 위안을 삼는다.

해안가 소나무 숲에 차를 댔다. 뒤 트렁크를 열고 텐트를 담은 대형 주머니를 꺼냈다. 텐트를 가져온 친구는 “설명서 보고 잘 쳐봐”라고 말하며 식사 준비를 한다.

“걱정 마, 금방 칠게.” 호기롭게 소리쳤지만, 설명서를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지대와 텐트 천을 이리저리 돌리고 맞춰보려 했지만 모양이 안 나온다. 이때 ‘영웅’이 등장한다. 그는 현역이 아닌 6개월 방위(의가사 제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그가 몸을 쓸 때마다 대형 텐트가 모양을 잡아간다. 아! 그는 공대 출신이라 설계도에 익숙했다.

드디어 30분 만에 텐트가 완성됐다. 안도의 한숨을 쉰다. 석쇠에 고기도 굽고, 시장에서 산 간고등어도 굽고, 오징어도 데치고... 푸짐한 저녁이 준비됐다.

모두를 침잠하게 만드는 모닥불

캠핑에 익숙한 친구가 식탁을 준비한다. 두꺼운 널빤지에 나사못을 박아 다리 두 개를 붙이고, 차 뒤에 걸치니 훌륭한 즉석 식탁이 됐다. 접이식 의자도 등장했다. 풀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맛있는 식사를 한다. 모기향도 피웠다. 애초 이곳은 모기가 주인인데, 인

간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밤바다를 보자고 한다. 황량하지만 젊은 시절의 추억이 가득 차 있기에 심심하지 않다. 파도 소리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덩실덩실 춤도 춘다. 저녁 먹으며 마신 알코올이 흥을 돋운다. 그때 친구가 외쳤다. ‘불멍’하자고.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모닥불을 보며 멍 때리는 것이 불명임을...

빈 페인트 통에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피운다. 모닥불은 모두를 침잠하게 만든다. 나뭇가지가 타는 ‘딱딱’ 소리만 날 뿐 사방이 조용하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 폰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 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 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 시(詩)가 사방에 날아다닌다. 시인의 말대로 울음을 참아가며 모닥불을 바라본다. 가수 박인희의 노래 ‘모닥불’도 입에서 맴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본다. 아쉽게도 별이 안 보인다. 약간의 비가 예보된 밤이다.

새벽비 맞으며 반가부좌 틀고 명상

내일을 위해 자야 한다. 한 친구는 차에서 잔다. 나머지는 텐트에서 잔다. 새벽에 ‘후둑후둑’ 소리가 난다. 가는 비가 텐트를 때리



4 계곡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5 오토캠핑장에는 다양한 텐트와 야영 장비가 등장한다. 6 망상해수욕장. 아침이라 한산하다.



는 소리다. 한 친구가 반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빠져 있다. 벌써 20년째 아침에 한 시간씩 명상을 한다고 한다. 친구의 실루엣이 돌부처 같기도 하고, 위대한 명사가 같기도 하다. 비도 그치고, 새벽 바닷가의 비릿한 내음을 즐기며 산책을 한다. 한가롭다. 앞으로 삶도 이리 한가롭고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해결한다. 텐트를 걷고, 출발이다. 망상해수욕장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질한다.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카페에 가서 푸른 바다를 보며 모닝커피를 마신다. 철 이른 해수욕장에 빈 의자만 보인다. 하지만 쓸쓸한 느낌은 안 든다.

오늘은 깊은 계곡에서 야영이다. 친구가 선택한 야영지는 경북 봉화의 우구치계곡. 가는 도중 강원도 영월의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기로 했다. 한 친구가 차 타고 가는 중에 전화를 하더니 금방 끊는다. 표정이 안 좋다. 아내에게 했는데 바로 끊더라는 것이다. 혼자 놀러 간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위로의 말을 건넨다. 돌이켜보니 2박 3일 동안 누구의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우리가 없어도 사회는 잘 굴러갔다. (젠장)

두 시간 반을 달려 동강 래프팅장에 도착했다. 물을 싫어하는 한 친구가 겁먹고 주저주저하다 아이들도 구명조끼를 입고 준비운동 하는 것을 보더니 용기를 낸다.

열 명이 탄 보트에는 여행 온 한 가족 삼대가 함께했다. 동강의 비경을 보며 때로는 위태롭게, 때로는 옆 보트와 물싸움을 하고, 때로는 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며 세 시간에 걸친 래프팅은 지루하지 않았고, 막판 슬터에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보름달 아래 속마음 터놓고 '진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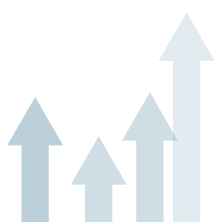
계곡에 도착하니 사방이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다. 물가에 텐트치고 어항도 놓는다. 밤이 깊어간다. 마침 음력 보름 하루 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함께 보름달이 덩그러니 웃고 있다. 서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진실 게임을 하며 추억을 쌓는다. 나이 먹고 진실 게임이라나….

새벽에 어항을 거두니 버들치 같은 물고기가 잔뜩 들어 있다.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고, 나머지 물고기로 손질해서 수제비 매운탕을 끓였다. 해장엔 그만이다.

한 친구가 새총 쏘기를 하자고 한다. 새총 쏘기 동호인인 그는 만 원씩 내고 10여m 떨어진 곳에 세워둔 빈 페트병을 세 번 쏘아 많이 맞힌 사람이 독식하자고 한다. 티타늄 금속으로 만들어진 진화한 현대식 새총은 가늠자도 있다. 경쟁은 항상 심장을 쫓깃하게 만든다. 5년 경력의 그 친구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2박 3일의 오토캠핑 놀이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2021년에도 모두 같이 놀러 가자, 친구들아. ㉠



이길우. <한겨레신문> 창간 작업에 참여해 34년간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한민족과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민족의 무예, 공예, 민간신앙 등을 글과 사진을 통해 꾸준히 발굴, 소개한다. 저서로 <고수들은 진강하다>, 사진집 <신과 영혼의 몸짓 아첼레란도> 등이 있다.



코로나19 시대 위상 더 높아진 신한류

코로나19로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중이다. 사회, 문화,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산업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복잡함은 더 눈에 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드라마, 게임, 음악 부문에서 그렇다.

넷플릭스 상위권 점령한 한국 드라마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한류’는 2012년 무렵 K-팝을 통해 ‘신한류’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기존의 한류, 신한류가 드라마와 음악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된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연예, 오락) 영역 전반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발판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의 상승세는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뿐 아니라 북미와 영국을 아우른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드라마 〈킹덤〉 시즌1과 시즌2는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 등도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 중 〈사랑의 불시착〉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태국, 필리핀,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1~2위를 거둔다.

미국, 유럽, 중동, 남미 지역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은 화제작이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도 북미 지역의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다. 영국에서는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등이 추천 드라마로 언급되는데 소재에서 역사물(조선시대), 현대물(재벌, 군대, 북한)을 아우르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게임·e스포츠도 전례 없는 호황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게임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게임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실시한 시장조사는 게임 이용자가 2019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는 결과를 담았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매출이 24% 이상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게임 시장의 규모가 최소 5%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팽창한 2014년 이후 6년 만의 높은 성장 지표이기도 하다.

‘2019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중 게임은 64억 1149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출액 규모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캐릭터(7억 4514만 달러), 지식 정보(6억 3388만 달러) 등이 자리 잡았다.

2020년 4월 구글플레이 상위 매출 톱10에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리니지M〉이 자리 잡았는데 〈리니지2M〉은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배틀 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발판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의 상승세는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뿐 아니라 북미와 영국을 아우른다.

인지도를 가지며 1분기 매출 5082억 원, 영업이익 352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9% 정도 늘어난 수치로, 영업이익만 보면 엔씨소프트(2414억 원)와 넷마블(204억 원)을 넘어 서며 넥슨(4540억 원)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크래프톤의 매출 중 9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한다. 게임 사용자의 대다수는 해외 이용자들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일일 접속자 수는 주말 기준 5500만 명에 이른다.(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다) 2018년 출시된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은 아랍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를 지원할 만큼 중동에서도 인기가 높다.

e스포츠 시장 또한 코로나19 이후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성장 중이다. 오히려 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은 e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인기 리그가 대거 취소되고 스포츠 중계가 곤란해지자 많은 방송국에서는 대타로 e스포츠 리그를 더 많이 방송했는데, 그 결과 새로운 시장과 시청자가 유입된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2020년대의 한류는 게임이 이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의 유희유 역할, 음악 콘텐츠

2020년 1분기, 게임을 제외한 전 세계 앱 매출 순위 톱5는 1위 틸다(데이팅 앱), 2위 유튜브, 3위 틱톡, 4위 넷플릭스, 5위 디즈니 플러스 순서다. 한마디로 콘텐츠 플랫폼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음악은 거의 모든 콘

텐츠와 결합하며 한류의 유희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음악 시장은 디지털 음원보다 오프라인 공연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대신 비대면 상황에서 음악은 새로운 공연과 수익모델의 가능성을 매우 빨리 찾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기반으로 K-팝이 확산되고 순환되는 현재, 해외 투어가 불가능해진 K-팝 예술가는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슈퍼챗(기부 결제), 후원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며 기존에 없던 방식의 수익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음악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 시장의 대체재로서 온라인 공연 및 가수/그룹의 지식재산권(IP)이 더욱 중요해지는 셈이다. 최근 슈퍼엠의 유료 온라인 공연,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등이 그 예다. SM엔터테인먼트의 '비온드 라이브'는 10만여 명의 팬들이 관람했고, 관람료 매출은 40억 원을 넘겼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은 75만 명이 참여해 관람권 매출액만 2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 한국 음악산업의 매출은 6조 2000억 원이다. 세계 6위의 음악 시장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여러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5세대(5G) 이동통신,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이 이어질 예정인데, 결국 2020년 이후의 한류는 콘텐츠와 기술의 관점에서 그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



차우진
음악평론가

7월의 추천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책나눔위원회가 매달 일곱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용 일반, 그림책·동화, 청소년 분야의 추천 도서는 여러분의 독서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공감>은 책나눔 위원회의 추천 도서를 매달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년
문학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김영사	2020
인문예술	철학으로 휴식하라	안광복	사계절	2020
사회과학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정아은	천년의상상	2020
자연과학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	김병민	동아시아	2020
실용 일반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박선민	후마니타스	2020
그림책·동화	63일	허정윤 글, 고정순 그림	킨더랜드	2020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북트리거	2017



철학으로 휴식하라

• 안광복 지음 • 사계절 펴냄

인문예술

철학은 어렵고 따분하며, 실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섬세한 사유만으로 삶이 곁이 달라진다. 그런데 철학박사이며 현직 고등학교 철학 교사인 저자는 '휴식'을 말한다. 철학으로 휴식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가 말하는 휴식은 일을 손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생각을 다듬고 섬세하게 더듬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다. 그는 일상에서 무겁지 않게 철학하는 '레시피'를 제공한다. 33인의 철학자를 소개해 흔들리는 삶에 중심을 잡아주는 철학적 사유로 휴식과 회복을 처방한다. 철학자, 정치인, 수필가, 경제학자 등 다양한 사유의 고갱이를 짧은 글에 불러오면서 그것이 나의 삶, 일상에 어떤 방향을 던지는지 묻고 답한다. 각각 짧은 글이어서 하루를 열며 잠시 생각의 호흡을 다잡기에는 적절한 방식이다. 철학이 어렵거나 따분하지 않으며 일상과 관계된다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처방전은 꽤 효력이 있을 것이다. 철학으로 휴식하는 하루가 그저 그런 하루일 수 없을 것이다.

김경집 위원(인문학자)



죽은 자의 집 청소

• 김완 지음 • 김영사 펴냄

문학

혼자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가난과 고통 속에 삶의 끈을 놓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과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스스로 끊고 떠나간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특수청소부'의 고된 작업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죽음의 도구까지 분리배출하고 간 여성의 이야기, 한때 열렬히 사랑했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는 특히 심금을 울린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는 '나의 마지막'을 차분히 성찰하게 된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죽음의 순간, 우리는 어떤 생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할까. 이 책은 죽어간 사람들이 남긴 '사물들' 속에서 그들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특수청소부가 마침내 작가가 되기까지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특수청소를 '직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명'으로 바라보며, 죽은 자를 향한 연민과 공감이야말로 그를 작가로 만든 원동력이다.

정여울 위원(나를 돌아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 정아은 지음 • 천년의상상 펴냄

사회과학

어린 딸이 해외에서 귀국해 함께 자가격리를 한 어느 남성의 이야기를 접했다. 아내도 회사를 다녀 상대적으로 직장 눈치를 덜 보는 자신이 자청은 했지만, 평소 집안일을 하는 편이라는 그도 보름 가까이 집안일 모두를 담당하며 새삼 깨달은 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아내의 소중함, 그리고 '집안일=노동'이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다른 노동과 다르다. 노동임이 분명한데 노동다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쉽게 폄하된다. 책은 그 어색한 위상의 문제를 다룬다. 가사노동에 치저 읽기 어려울 수 있는 전문서와 달리,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15권의 책과 저자의 경험이 녹아든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연결해 흥미롭고 공감이 가게 풀어낸다. 가정의 위기를 고민하는 시대다. 해결의 출발점을 가사노동의 진정한 가치 재조명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준호 위원(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

• 김병민 지음 • 동아사이퍼널

자연과학

누구나 학창 시절 과학이나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외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재미없던 주기율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나왔다. 화학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의 구성과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학문이고 그 응용성도 무궁무진한 분야다. 또 주기율표는 복잡한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원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다. 그러나 학창 시절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암기했던 원소들의 주기율표나 특징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까워지기 어려웠다. 저자는 주기율표의 네모진 칸 하나하나의 118개 원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원리 및 그 아름다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미를 제공한다. 천문학이나 물리학, 생물학 등 다른 과학에 비해 화학 분야의 대중을 위한 과학서는 드물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반갑다.

송기원 위원(연세대 생명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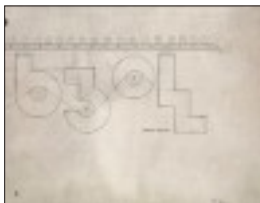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 박선민 지음 • 후마니타스 퍼블리싱

실용 일반

언제부턴가 국회는 정쟁의 장으로 추락했다. 뉴스에서는 당리당락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보도된다. 그렇지만 사실 국회는 국민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야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과 예산 하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임위원회는 왜 꾸려지며 교섭단체는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은 진보정당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저자가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절차, 용어 등을 풀어 쓴 책이다. 복지 분야 법안을 세운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낀, 국회가 좀 더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특히 저자는 입법에 대해 “누군가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고 말한다.

송현경 위원(내일신문 기자)



63일

• 허정운 글 · 고정순 그림 • 킨더랜드 퍼블리싱

그림책 · 동화

63일. 강아지 한 마리가 ‘생산’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현대식 공장에서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기간뿐인가. 품종, 크기, 색깔, 생김새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 어미 개는 철망 위에서 먹고 싸며 강제 수정당하고 강제 출산당한다. 그렇게 꺼내진 강아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책은 확인해준다. 공장 출신 반려견을 들인 글 작가가 쓴 글은 간명하고 냉정해서 오히려 이 처참한 상황을 부각한다. ‘작은 생명이 자유롭게 땅을 디딜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그림 작가도 차가운 흑백 에칭 판화를 통해 아픈 마음을 역설적으로 그려낸다. 쇼윈도 안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사달라 조르거나 지갑을 열어 ‘기뻐할 누군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게로 와서 함께 가족으로 살 생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동물과 아이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인간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서정 위원(동화작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 박민영 지음 • 북트리거 퍼블리싱

청소년

사람들은 자주 무엇을 비판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다. 비판을 하려면 확실한 정보와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하고, 그게 부족하면 거꾸로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 청소년을 1차 독자로 삼는 책의 목표 중 하나는 비판 정신 기르기인데, 막상 그에 적합한 책은 드물어 보인다. ‘합리적이고 건전하다’ 할 수 있는 비판의 기준과 방향 설정이 어렵기 때문일 터다. 이 책은 학벌, 노동, 광고, 게임, 군대와 같이 보편적이고도 매우 민감한 현대의 사회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현실을 세계 동향 속에서 보게 하며, 일상에서 품는 작은 의문과 전문가의 학문적 통찰을 연결해 독자 나름의 주장을 펼 수 있게 안내한다. 표현이 쉬운 데다, 지은이의 생각을 유보하면서 자료를 통해 독자가 판단하도록 이끄는 화법도 자연스럽다. ‘용기 있는 10대를 위한 세상 읽기’라는 부제에서 짐작되듯, 한국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낳은 책이므로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에 적합하다.

최시한 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강압적 통제와 훈련량 늘리는 방식은 안 돼 인권·성적 위해서도 엘리트 장벽 허물어야”



김상범 중앙대 체육대학장

2018년 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스포츠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를 구성해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등 7차례 권고안이 발표됐다. 1년여가 지난 2020년

6월 26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달라진 게 없었다.

7월 15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김상범 체육대학장을 만나 체육계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상범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여러 차례 활동했고, 현재 체육 분야 비정부조직

▲ 김상범 교수가 7월 15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체육대학장 사무실에서 체육계 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스포츠에는 도전과 극복 정신이 있다. 항상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잠재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잘못된 단서가 붙어서는 안 된다.”**

(NGO)인 체육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체육계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소수 엘리트를 선발해 어려서부터 혹사하는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불행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올림픽 메달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되고 메달을 따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스템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자고 말하면 ‘엘리트 체육 죽이기’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며 “그 시스템의 벽을 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문제

스포츠는 공정한 규칙을 전제로 해 그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믿는다. 선수의 승리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만큼 승리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스포츠에는 도전과 극복 정신이 있다. 항상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잠재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잘못된 단서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혼자서 운동 삼아 5km를 달린다 해도 다음에는 단 1분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적 통제와 훈련량 늘리기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인간의 몸은 매일 7~8시간씩 운동할 수 없다. 기존 방식이 아니어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

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그를 구제해준 곳은 없었다.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은 스포츠혁신위 1차 권고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김 교수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다 비슷할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보낸다. 조사할 인력도 없다. 평소 자신의 행동반경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에 피해를 호소했다면 해결됐을 수도 있다”며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규정은 구비돼 있지만 상급단체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시체육회-도체육회-대한체육회 등이 줄줄이 ‘아는 사람 봐주기’를 하니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다. 폭행 등 피해자가 생기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상급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킨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을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결정한다.

학생선수-일반 학생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체육협회 등 조직 운영의 투명성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과제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아무개 경주시청 운동처방사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버젓이 트라이애슬론 팀닥터로 활동했다.

**“초·중학교는 어렵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운동부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인기 종목 등 소규모 협회의 경우 대부분 찬조금을 낼 수 있는 지역 유지들이 협회장을 맡고 사무직원 한두 명을 두고 운영한다. 아무도 협회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구조”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스포츠 선진국들은 많은 자원봉사자가 조직 운영을 돕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도 많아 조직을 함부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선수들의 인권과 성적을 모두 잡기 위해서도 엘리트의 장벽을 더 허물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미국 등에서는 어릴 때 운동했던 경험이 70~80%가 넘는다. 엘리트나 생활체육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 국가대표 마크를 달아주면 그가 엘리트 선수”라며 “우리는 엘리트 코스가 따로 있고 이들 소수 인원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기력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무리가 생긴다”고 했다.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한다. 그리고 진로를 택해야 할 특정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재능이 발견되면 그때 자기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나라에도 초·중학교 시기에는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보다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지만 선수 등록 등 엘리트의 장벽에 막혀 있다. 김 교수는 “학생선수와 일반 학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뛰어난 스포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숙소 통해 위계질서 만들어져

학교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이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외길’ 인생을 강

요받으면서 인권침해 환경에 노출된다. 학생 선수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그곳에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담당 코치 등의 폭언·폭력을 알면서 묵인하기도 한다.

합숙소 역시 학생선수들이 일반 학생과 분리된 특별한 잣대로 운영되며 그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된다. 합숙소는 사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학생 등은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운동부 합숙비와 식비 등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합숙소를 통해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고 과도하게 통제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합숙소를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정하고 작위적으로 운영하면서 온갖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감독이 관리를 위해 학년별로 책임을 지우면서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학교는 어렵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운동부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지도와 감독은 기숙사의 사감이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

김 교수는 “스포츠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30만~50만 명 수준이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며 “스포츠 대회만 보지 말고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사진 이찬영 기자

문체부 “폭행 등 체육 분야 악습 끊을 것”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언만 해도 중징계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7월 15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인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뿌리 깊은 ‘복종 문화’를 깨고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 인권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윤희 차관은 참석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살펴 체육계 인권보호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가혹행위와 폭행 등 체육 분야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여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체육학과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서울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증진과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지도자 책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을 7월 14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처럼 이뤄지던 어떤 폭력도 용인되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훈련 도중 욕설 등이 그동안은 학교장 주의로 끝났다면 앞으로는 정직·해고도 가능해진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지도자가 폭력행위 가해자일 경우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화와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가해자가 다른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8월 14일까지 집중 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7월 15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인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기간(누리집·직통전화 399-9571)을 시행한다.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지침을 제정한다. 일주일 중 하루를 ‘훈련 없는 날’로 정하고, 초·중·고별 하루 최대 훈련시간 지침을 제정한다. 하루 최대 훈련시간은 초등학교 2.5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4.5시간으로 정했다.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지침은 2020년 권장 시행을 거쳐 2021년에는 초·중교, 2022년에는 고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주중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 수도 매년 줄여 현재 63~64일(수업일수의 3분의 1)에서 학교급별 20~40일로 줄인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찬조금 조성이나 (성)폭력 등 비위를 저지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역량 강화 연수, 인문학 특강 등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⑦

이찬영 기자

주력산업 기초체력 키워 경제 주춧돌 지킨다

기간산업 지켜낼 안정기금 출범

코로나19 사태는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다. 방역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이 처음에는 내수를 위축시켜 서비스업 중심으로 충격을 주다가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는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양상이다. 기업이 돌발적인 악재로 충격을 받으면 유동성(자금) 위기가 찾아온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아직 기업 자금시장이 평온해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9월까지 연장해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의 상황이다.

항공·해운업과 협력업체부터 지원 대상

특히 항공, 해운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핵심 대기업마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력산업 대기업의 유동성 압박은 해당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고, 기업 전반의 비용 감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이는 다시 기업의 경영 환경과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가 이런 악순환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파제' 구실을 할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5월 28일 출범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다. 산업은행에 설치된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안기금의 취지와 핵심 가치는 기간산업의 경영 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일자리를 지키

는 것이다. 기금의 채권 발행 한도가 40조 원이지만, 기금에서 구조조정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안기금의 지원 규모는 '40조 원+알파(α)'로 예상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배정받은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금융기관에 4조 7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경으로 실탄을 채운 만큼 기존에 발표했던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

▼6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영향 기업

①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 → 100조 원+ α 패키지 확대: +35조 원

② 일시적 유동성 부족 +
자본력 보강 필요 기간산업 →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40조 원+ α

③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기업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 프로그램
(자율협약,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회생절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취지와 핵심 가치는 기간산업의 경영 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40조 원+알파(α)'로 예상된다.

다. 우선 기안기금 지원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받기 시작했다.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과 기업에 대한 법적 요건은 산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으나 부처 간 의견 수렴을 거쳐 1차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 두 업종으로 한정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은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이며 직접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이다.

시행령은 그러나 지원 대상 업종과 기업을 언제든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 요건의 예외로 인정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간산업의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에 들어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대상 업종은 시간이 문제일 뿐 중요한 기간산업은 모두 담기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3차 추경 통과로 신청 및 심사 본격 가동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6월 19일 열린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됐다. 기안기금에서 1조 원을 따로 떼어내 SPV를 설립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기간산업의 중소·중견기업 협력업체에 총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게 확정된 내용이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SPV가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해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수익과 위험은 고루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조화 금융이 실시된다. 협력업체 대출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기안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기간산업 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존과 상생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 일지

자료: 금융위원회 등

날짜	항목	내용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의 보도자료	(지원 대상)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 업종을 포함해 법령 등으로 구체화
4월 23일	이학영 의원 산은법 개정안 발의	지원 대상에 항공 등 7대 업종 명시
4월 28~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 및 본회의 통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미리 업종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시행령 이하에서 필요한 업종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정무위 검토 의견 반영. 수정안에 7대 업종 명시하지 않음
5월 6일	금융위원회,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대상에 항공 등 7대 업종 명시+그 밖에 금융위가 지정
5월 12일	산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원 대상에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 명시+그 밖에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협의해 지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되,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여건과 대출 규모,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차 추경의 국회 통과로 기안기금도 기업 신청과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및 운용 방식, 지원 대상 기업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기금 출범 때 발족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는 국회 여야 추천과 기재부, 금융위,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은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산은은 기안기금의 본격 가동에 맞춰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업체제도 구축했다. 기안기금 지원 신청 기업에 심사과 지원 방식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 민간 주채권은행의 정보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청 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애로가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일시적 위기를 극

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채권 은행의 이해와도 밀접한 사안이다.

기금 자원의 중요 조건은 고용안정 노력

기안기금의 기업당 지원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충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자금난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폭이 크고, 앞으로 1년여 동안 예상되는 매출 흐름 또한 부진할수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부실이 쌓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존 금융권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을 위한 소요 자금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방식은 대출과 채무보증은 기본이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자산 매수, 기금의 자본 확충 참여 등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우리 주력
산업의 기초체력을
뒷받침하는 게 기금의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안기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의무와 조건이 뒤따른다. 먼저 고용안정 노력이다. 기존 고용 총량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넘게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인력 감축 사유가 생기더라도 전환 배치나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노사가 함께 기울여야 한다.

기금 지원 기간에는 기업이 노사 공동의 고용유지 노력 사항을 정부와 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 노력도 자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익 공유와 도덕적 해이 방지도 기안기금 지원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전체 지원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연계 증권의 취득 형태로 약정을 맺어야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보증으로 이뤄지는 기업 지원인 만큼 경영 정상화에 따른 이익도 일부나마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또 기금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고, 2019년 기준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재벌 계열사일 경우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 지원으로 기금 지원을 우회 활용하는 것도 철저히 차단된다. 금융당국과 기안기금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약정 의무나 지원 조건의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즉시 지원 자금 감축이나 회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첫 지원 대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유력

금융권과 재계에서는 기안기금의 첫 지원 대상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금이 처음으로 지원할 기업은 대한항공이 가장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지원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미 집행한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금을 기안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안기금 지원 대상 1호를 예약해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객 수요 급감에 따른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달 5000억~6000억 원의 고정비와 채무 상황이 벅찬 상황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과 회사채 등이 무려 4조여 원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합병(M&A)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만 기금 지원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기안기금 대신 정부가 마련한 다른 금융 지원 패키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에서는 2개 업체가 기안기금 지원 신청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최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금 사정이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기안기금의 구체적인 기금 지원 조건과 방식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겠다는 게 해운업계의 기류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미 1조 8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체들로서는 이 프로그램과 기안기금의 지원 조건 차이를 비교해가며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항공, 해운업의 기안기금 지원 신청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지원 대상 업종과 기업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안기금은 정부의 국책금융기관 출연과 기금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공적 기금이다. 기업 지원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부실만 키우면 최종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우리 주력산업의 기초체력을 뒷받침하는 게 기금의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부실기업의 생명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더욱 안 된다. 대규모 채권은행들이 기금 운용을 통한 기업 지원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 ●

박순빈 기자

눈·가슴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고용 편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센터'도 개설한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운데 '복지·고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보건·복지·고용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재정 부담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 발급)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됐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을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특고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된다. 개정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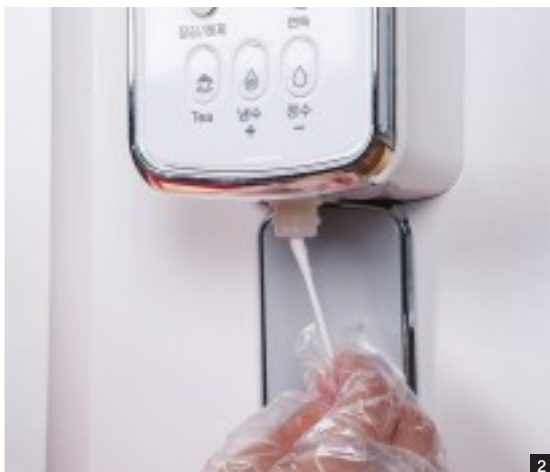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소액생계비 200만—500만 원)으로, 이와 연동해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 근로자 및 특고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줘 가계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도 확대했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2020년 9월 신규로 설치하고, 지원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3곳, 전남 1곳의 센터 설치로 1000개소 이상의 급식시설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센터 운영 효율화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린다. 또한 급식시설이 센터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 간소화, 모바일 등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급식시설의 센터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 1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2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3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가 2020년 9월 신규로 설치된다.



2



3



4



5

교육·보육·가족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이 2020년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임 사업 실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름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이임 강사인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친화활동에 직접 참여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9월에 시행한다.

국방·병무

‘군소음보상법’ 시행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소음 피해에 대해 다음 연도에 청구 및 지급하는 등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6월 11일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4 이주여성들이 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5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6 7월부터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시행된다.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에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에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 보상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수급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내용은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해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혜 대상이다. 단,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 비용은 감면 대상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음 해 현역병 입영일자 6개월 전에 안내

7월부터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금년 12월에 알려줌으로써 다음 해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 7월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 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 시행한다. 7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설해 1:1 맞춤 심층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 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1월부터는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해 병역의무자 누구나 본인 자격이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거나 '심층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글 김청연 기자, 사진 한겨레



2020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계획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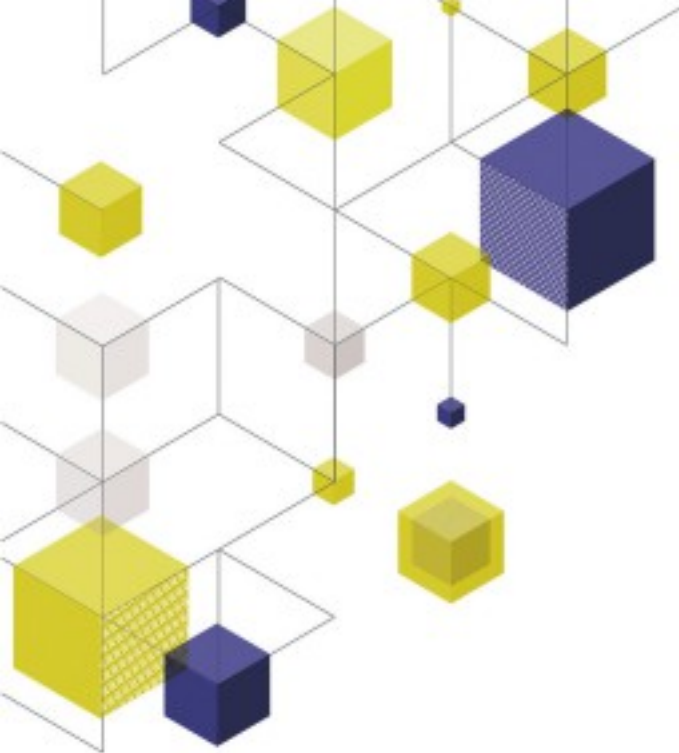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총 16개 부처 34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3, 과장급 21)
민간인만 선발하는 직위 13개 직위(고위공무원단 3, 과장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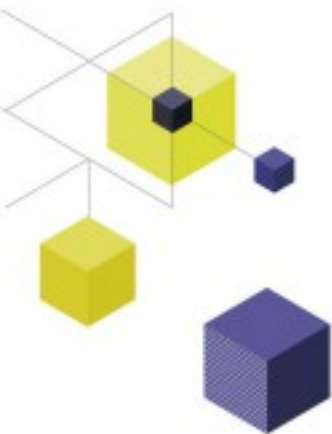
예정시기	부처	직위	직급
7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고위공무원단
		도시활력지원과장	과장급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고위공무원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고위공무원단
	법무부	법무심의관	고위공무원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과장급
	외교부	주카자흐스탄(대)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단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과장급
8월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고위공무원단
		경인시·도청장	과장급
	고육부	순천대 산학연구지원과장	과장급
		학생건강정책과장	과장급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과장급
		인천구치소 의료과장	과장급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과장급
9월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고위공무원단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과장급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과장급
	국토교통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	과장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고위공무원단
		국제산림협력관	고위공무원단
	외교부	주사우디(대)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단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과장급
10월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장	과장급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과장급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과장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위공무원단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산우체국장	과장급
	교육부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대외교류과장	과장급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고위공무원단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과장급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사관	고위공무원단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과장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과장급

표시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한 직위입니다.

- 위의 선발 직위, 선발 시기 등은 예정 사항으로 각 기관별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선발시기, 응모자격 등 모집공고는 해당 초·나라별(<http://www.gojobs.go.kr>) 또는 '선발예정기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은 12월 말 경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선발예정기관 인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모집과 (☎ 044-201-8358)



2020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서울

가회민화박물관
경기여고경운박물관
다문화박물관
떡박물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박물관
북촌생활사박물관
브이센터라이브뮤지엄
서울상상나라
합벽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유금의당박물관
인도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단하기념불교박물관
광강성서유물박물관
피규어뮤지엄W
한양대학교박물관

인천

가천박물관
녹천지박물관
범저민속문화박물관
예보박물관

대전

옛터민속박물관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강원

강원도DMZ박물관
동양지수박물관
라디오스타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에너지이션박물관
염대공박물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울정사성보박물관
인도미술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책과인쇄박물관
차악신고전화박물관
피노키오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호인대구박물관

경기

경기대학교소성박물관
경기도지박물관
김포도박물관
덕포친교박물관
두루외사관
죽아박물관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부천로보파크
세계인문학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이주대학교도구박물관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여주공충박물관
영점공시전시관
우석한자연사박물관
유진인속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진아박물관
마주나비나라박물관
물침공예박물관
프라울리 박물관
피노키오
한국등산박물관
한국민화박물관
한강책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향림공예박물관
왕순침문학촌소니기마

충남·충북

세계술문화박물관
운양민속박물관
한국도량형박물관
한국민속국립박물관
한국식기박물관
한국자연사박물관
한국토종파앗박물관

광주

비공박물관
한국이공박물관

제주

박물관은살아있다
아프리카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울산

울산해양박물관

전남·전북

귀족호도박물관
다산박물관
담양무효박물관
영광해양자연사박물관
우리살문화속박물관
원불교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화암사성보박물관

경남·경북

김해한림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교역사·박물관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대구한위대학교박물관
얼음골속음기소리박물관
의성조문국립박물관
진주어린박물관
청송수석박물관
표충사호국박물관
희희세계탈박물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한국전통장조박물관
합천한의학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해인사성보박물관

대구

계명대학교형소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인당뮤지엄
대구성유박물관
박물관후르
박물관수
자연염색박물관

부산

동원대학교박물관

세종

연기향도박물관

오바마부터 빌 게이츠까지... 구멍 뚫린 트위터

최근 트위터 해킹으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 등의 계정을 누군가가 탈취한 것이죠.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이 해커(또는 해커들)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특정한 사람 등의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를 지닌 이들 계정을 통해 특정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훔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공동체에 환원하고 싶다”며 “나에게 비트코인을 보낸 분에게 갑절로 돌려주겠다”고 호소하는 식입니다. 물론 사기라는 사실이 곧 확인되었지만 몇 시간 사이에 1억 원 넘는 돈이 해당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됐다고 하네요.

이는 대표적인 누리소통망(SNS)인 트위터에서 일어난 해킹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에 따르면 트위터의 조사 결과 130여 개의 유명인 계정이 해킹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의회, 금융당국 등이 모두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틈탄 사이버 공격

코로나19 대유행을 틈탄 사이버 공격은 트위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현지 시각)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미국, 캐나다 정보기관과 함께 한 해커 집단이 학계와 제약업계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 성과를 탈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 집단 ‘APT29’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이죠.

‘코지 베어(Cozy Bear)’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이 집단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전자우편 해킹의 범인으로 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목되기도 했습니다. 유출된 우편 내용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Tass)>를 통해 “영국을 상대로 누가 해킹 공격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부서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끊임 없이 받는다. 그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기관은 그런 공격을 수시로 차단한다. 우리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은 분명히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할 때부터 해킹은 늘 따라붙는 위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트워크가 더 복잡하고 해킹 기법이 더 발전하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자는 2015년 ‘스노든 폭로 2년 인터넷 감시사회’ 기획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해 그들과 친한 정보기관이 어떻게 적과 우방, 스파이와 시민을 가리지 않고 감시를 했는지에 대한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재점검한 기획이었죠. 당시 만난 보안 전문가에게서 ‘해커가 어떤 시스템에 침투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 다른 기관이나 인물인 양 위장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후원을 받는 코지 베어를 지목한 데에는 분명 근거가 있겠지만 초연결시대 네트워크의 먹고

먹히는 사이버 전장에서 그런 근거를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의 ‘우리에 대한 공격을 수시로 차단한다’는 항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들립니다. 대단한 보안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해킹 시비가 붙을 때마다 진위를 가릴 순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쪽의 말을 믿는 것 이상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해킹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해킹이 다반사이고 범인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각 개인이 더 똑똑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트위터 해킹 사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계정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돈을 보내거나 심한 경우 오바마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주변 사람도 믿도록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리트윗을 서로 날리다 보면 오바마의 팔로워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속임수에 빠졌을 수 있겠죠.

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오바마 계정의 말이 평소와 다를 때 이를 눈치챌수록 전체 트위터 커뮤니티에 미치는 피해도 적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점들(노드)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떤 공격에도 전체 네트워크의 건강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는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건강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일수록 사고가 난다면 더 크게 날 테니까요. ⑦



권오성 <한겨레> 기자로 미래, 과학 등을 맡던 중 뉴욕 시러큐스 대학에서 컴퓨터 기술과 저널리즘의 융합 석사과정을 마쳤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사회와 미디어에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많다. <데이터 과학> 등의 책을 번역했다. 현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축구 차세대 정통 골잡이의 강림? K리그에 ‘괴물’ 오세훈이 떴다

이건 완전 괴물이네!

프로축구 K리그에 ‘오세훈 열풍’이 몰아쳤다. 올해 나이는 21세. 하지만 날고 긴다는 프로축구 최고 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7월 셋째 주까지 4골 1도움주기. 이 나이에, 그것도 K리그 무대인 것을 고려하면 알토란 같은 기록이다. 더욱이 그는 국가대표급이 즐비한 상주 상무에서 뛰고 있다. 시즌 전 교통사고로 남들보다 늦게 리그에 가세한 뒤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는 것은 더 인상적이다. 덕분에 상주는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득점과 도움을 합친 공격포인트 5점은 톱10 안에 있다. 플레이의 영양가를 보여주는 전문가 평점에서는 평균 6.6점으로 톱5에 들어간다. 전체 선수 가운데 3위권이다. 김대길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은 “현대와 시절부터 고교 최강이었다. 프로에 입단한 뒤 파워에서 밀렸지만 지금은 힘까지 견비했다. 앞으로 성장이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무서운 선수”라고 평가했다.

193cm, 85kg의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춘 그의 장점은 여러이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 그를 향한 크로스가 위협적인 것은, 공을 잡아놓은 위치가 절묘하고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데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골잡이의 특징은 골 냄새를 맡는 본능인데, 적시 적소로 파고드는 그의 몸동작은 전성기의 황선홍을 연상시킨다.

전성기의 황선홍 몸동작 연상

실제 그는 황선홍의 뒤를 이을 정통 원톱 스트라이커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체격과 제공권, 득점력, 발재간을 갖춰야 하는데, 신장이 큰 것에 비해 몸놀림이 가볍다. 과거 이회택은 중앙에서 공을 잡으면 여지없이 해결 능력을 과시했고, 황선홍은 특유의 공간 감각과 예측력, 볼 컨트롤로 골을 터트렸다. 이동국은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레전드다.

오세훈이 황선홍과 이동국에 이어 모처럼 등장한 원톱 대



193cm, 85kg의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춘 오세훈의 장점은 여럿이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 골잡이의 특징은 골 뱀새를 맡는 본능인데, 적시 적소로 파고드는 그의 몸동작은 전성기의 황선홍을 연상시킨다.

형 스트라이커로 주목받는 것은 그의 성장세 때문이다. 2018년 울산 현대에 입단한 그는 선수 진용이 화려한 울산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9년 2부 리그 아산 무궁화로 임대됐을 때 더 열심히 뛰면서 근성을 발휘했고, 6월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는 정정용호의 핵심 공격수로 준우승을 일구는 선봉이 됐다.



양이 많은 K리그에서 오세훈은 급성장하고 있다. 수준 높은 팀 선배들과 훈련을 통해 기량이 향상되는 것은 팀 구성이 주는 시너지 효과다. 7월 18일 대구FC와 12라운드 경기 때 1골 1도움을 기록한 그는 라운드별 최우수선수에 뽑히기도 했다. 앞선 1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 골에 이은 1부 리그 연속골 행진으로 골잡이로서 값어치는 더 뛰었다.

진가를 알아본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그를 호출했고, 2020년 1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 축구대회 우승 때도 전북 현대의 조규성과 함께 팀 공격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2019년 12월 상주 상무에 입대해 뒤쫓은 머리를 한 채 집중하며 뛰는 그의 모습에선 승부사 기질도 엿볼 수 있었다.

프로 선수들의 상주 입대는 보통 26~27세 때다. 하지만 2020년부터 상주 상무도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22세 이하 선수들을 의무 출전시켜야 했고, 오세훈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른 나이에 상주에 입대했다. 선배들과 주전 경쟁이 쉽지는 않지만, 오세훈은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고 있다.

오세훈의 올 시즌 출발은 돌발 사고로 늦춰졌다. 5월 K리그 개막을 2주 앞두고 프로선수 전체가 받아야 했던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선수단이 타고 가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부딪히면서 5명이 다쳤고, 오세훈은 가장 늦게까지 재활을 해야 했다.

이런 까닭에 프로축구연맹이 연말 시상식 때 프로 3년 차 이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한 이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과거의 신인상) 후보로 꼽힌다. 경쟁자로는 동갑내기인 포항 스틸러스의 송민규와 전북 현대의 '거미손' 송범근(23) 등이 꼽혀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김태완 상주 감독은 “오세훈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도 버텨내야 한다. K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뛰려면 힘을 분배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오세훈한테도 특급 프로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K리그에서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는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면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는 학원 축구선수들한테도 외면받는 포지션이었다. 하지만 오세훈이 정통 원톱 스트라이커로서 등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 후배들한테 새로운 모범이 되는 오세훈의 성장은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➊

2020시즌 영플레이어상 후보 떠올라

하지만 한 달 늦은 6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부터 투입되기 시작해 2골을 폭발시켰고, 이후 계속 선발로 호출되고 있다. 김태완 상주 감독은 기회만 오면 득점포를 터뜨리는 오세훈에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워낙 공의 흐름이 빠르고, 뛰는



김창균_〈한겨레〉스포츠팀장

1 프로축구 K리그 상주 상무의 오세훈이 7월 18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구FC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 오세훈이 골을 성공시킨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프로축구연맹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프레스코화, 500×700cm, 1509~1510, 로마 바티칸박물관 소장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그리스 최고 석학들의 '사상 경연장'

르네상스는 세상의 중심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한 인문주의 문화운동이다. 14~16세기 유럽 전역을 휩쓴 르네상스의 물결은 신 대륙 발견, 지동설의 등장, 봉건제의 몰락과 상업 부흥, 종이·인쇄술·화약 발명 등 인류 역사를 뒤바꾼 획기적인 결실을 낳았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르네상스의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분야는 단연 예술, 그중에서도 미술이었다. 당시 미술은 단순히 예술의 한 장르에 머무는 위치가 아니라 시각적인 관찰과 수학적 분석, 과학적인 탐구 정신을 망라한 학문의 핵심 기둥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 결과 미술 이론의 전범인 원근법의 발견

과 유희물감의 번성, 균형과 비례의 법칙, 명암 대비, 해부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신체 묘사 등 근대 회화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양을 확보하게 됐다.

이처럼 르네상스 미술의 황금기를 이끈 세 명의 천재 예술가가 있었으니,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와 미켈란젤로(1475~1564), 라파엘로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중 가장 늦게 태어난 라파엘로는 불과 37세의 나이로 요절하지만 짧은 생애를 만회하고도 남을 찬란한 업적으로 르네상스 3대 거장에 이름을 올린 천재 화가다.

르네상스 미술 정신 완벽히 구현

라파엘로의 수많은 업적 중 첫손에 꼽히는 것이 르네상스 미술 정신을 완벽히 구현한 걸작 '아테네 학당'이다. 라파엘로가 1509~1510년에 그린 '아테네 학당'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의 보고인 로마 바티칸박물관 내 성베드로 대성당 안 서명의 방을 위풍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다.

세로 500cm, 가로 700cm 크기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등 54명의 내로라하는 위인들이 학당에 모여 토론하는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대작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자들 모습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당대의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내세워 그린 것이다. 심지어 라파엘로 자신도 모델로 등장한다.

1483년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의 작은 도시 우르비노에서 태어난 라파엘로는 8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1세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삼촌의 보살핌 아래 성장기를 보냈다. 궁정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일찍이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1504~1508년 르네상스 미술의 본거지인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다빈치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대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피렌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방울새의 성모' '도니 부부의 초상화' '대공의 성모' 등이 있다.

피렌체 시기의 마지막 해인 1508년, 라파엘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호출로 로마로 건너가 바티칸 궁전 안 교황의 서재인 서명의 방에 초대형 벽화를 제작했는데, 이게 바로 '아테네 학당'이다. 율리우스 2세는 물론 후임 교황 레오 10세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교황의 화가로 승승장구한 라파엘로는 그러나 1520년 급사로 생을 마감한다.

50여 명 석학이 자유롭게 토론과 사색

아테네 학당은 실제로 존재했던 교육기관이다. 기원전 385년경 플라톤이 아테네 교외에 세운 학교로 철학과 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오늘날 아카데미의 기원이다. 서기 529년까지 900년 이상 존속했다.

고대 그리스를 주름잡았던 50여 명의 석학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색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은 우선 르네상스가 지향한 인문주의 정신과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총화를 상징하는 조화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평화롭게 표현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림 한가운데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이가 플라톤, 옆구리의 책은 <티마이오스>, 즉 형이상학이다. 관념과 이념의 신봉자답다. 라파엘로는 플라톤의 모델로 자신이 흠모했던 다빈치를 내세웠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른 손바닥은 땅을 향하고 있다. 들고 있는 책은 <에티카>, 윤리학이다. 현실론자로서 당연하다.

플라톤 왼쪽으로 7, 8번째 민머리에 들창코 모습으로 손가락을 꼽아가며 원가를 진지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 바로 옆, 파란 옷의 젊은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며 투구에 군복 차림을 하고 소크라테스와 마주보고 있는 인물은 군인 겸 정치가 알키비아데스. 그림 맨 왼쪽 기둥에 풀잎 모자를 쓰고 필기 중인 듯 보이는 사람이 윤리철학의 창시자 에피쿠로수다.

맨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기록하는 이는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 창시자 피타고라스.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도 있다. 그림 오른쪽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컴퍼스로 원을 그리며 강의 중인 사람이다. 반라의 차림으로 계단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유난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관습과 일상의 가치를 벗어나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 건유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이며 그 아래 왼쪽으로 턱을 괴고 골똘히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으니, 바로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주장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수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대리석으로 된 탁자도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연상시킨다.

라파엘로 본인도 나온다. 그림 맨 오른쪽 기둥 옆, 흰옷과 흰옷을 입은 남자 곁에 얼굴만 보이는 사람인데,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옆쪽으로 등을 돌린 채 왼손에 지구의의를 들고 있는 인물은 천동설을 주창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며 조로아스터가 맞은편에서 천구의(별자리본)를 들고 서 있다. 가히 고대 그리스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별들의 사상 경연장이라 할 만한 그림이다. ⑦



박인권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2001),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2006),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이상 2006) 등이 있다.

공감 리뷰



특집 '다시 뛰자, 청년들아!'는 기사 하나하나가 피부에 와닿는 공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청년 희망사다리 다시 세우자'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할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정책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인의식의 의미가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을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박경림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이번 주엔'에 소개된 문화 소식이 참 좋았습니다. 전시회, 콘서트, 영화, 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보면서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예정된 연주회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오프라인 공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전시 중인 <조선, 역병에 맞서다>의 서울 전시를 놓쳐서 무척 안타깝네요.

박복미 서울 중구 순화동

사진 공감



날씨가 무더운 요즘엔 바닷가가 최고 놀이터인 듯합니다. 사람이 드문 평일 조용한 바닷가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신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놀아야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이도 어른도 다들 조심조심하다 보니 이런 일상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김려경 부산 영도구 봉래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가면 수많은 벽화와 함께 수국을 많이 심어놓아 6월 말에서 7월이면 활짝 핀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1m 정도 높이에 잎은 넓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엔 톱니가 있으며 색깔은 빨간색, 하늘색, 흰색 등 다양해 보고 있지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아름다운 우리말

라스트 마일? 최종 구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새말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말모임은 언론에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외국어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이를 국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누리소통망(SNS)으로 바로 논의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국민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쉬운 말로 다듬어 널리 사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대상어(원어)	의미
(감염병) 주기적 유행	엔데믹(endemic)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
최종 구간	라스트 마일(last mile)	상품 등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이동 구간을 이르는 말
취합 (선별) 검사	물링 검사(pooling 検査)	여러 사람에게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후 모두 섞어 한꺼번에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가 양성 나오면 검사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대규모 인원의 감염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검사 방법이다.
투명창 검진	윈도 스루 검진(window through 檢診)	컨테이너 등의 분리된 공간에서 의료진이 창문을 통해 외부에 있는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의료진이 최소한의 보호 장구만 착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의료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끝장 개발 대회	해커톤(대회)(hackathon 大會)	「정보·통신」,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루어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행사. 주로 응용프로그램, 웹 서비스, 사업 모형, 접속 방식 및 장치의 설계나 개발들이 과제로 제시된다.
끝장 토론	해커톤 토론(hackathon 討論)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 개발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일. 본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등의 분야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미리 주제와 기간을 정해 토론 대회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노후) 건강 투자	헬스테크1(health tech)	건강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 또는 노력
건강 기술	헬스테크2(health tech)	의료 및 보건 분야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 관리 기술
재임대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입점 업체 선정, 건물 관리와 새 단장(리모델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함
소신 소비	미닝 아웃(meaning out)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
얼굴 가림막	페이스 실드(face shield)	필름 형태의 감염 방지용 안면 보호 기구. 고글보다 가벼우며 쉽게 쓰고 벗을 수 있도록 제작됨
공간 나눔 주택	코리빙 하우스(co-living house)	개인 공간은 분리하되,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입주주민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 주거 형태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blog.naver.com/mcst_pr

1boon.kakao.com/weekly

www.instagram.com/wegonggam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5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을 통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효창로길6 한겨레신문사 6층 매거진랩부
<공감> 편집부 앞(우 04186)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곳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도 되고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사진 공감'에 선정된 분께는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같이 보내주세요.



소중한 사람

전이수 글·그림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마구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보다 쉽게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알게 되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대한다면,

처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해도 쉽게 대하고
함부로 하는 나의 행동이
결국 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다짐하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좋게 더 예쁘게 대한다면
마음도 더 예뻐지고 사이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넓어지면 사회 전체가
더 밝아지고 예뻐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이수

2008년에 태어난 물고기자리 남자아이로 사남매의 맏이다. 제주도 자연 속에서 재미난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쓴다.
언제나 엄마, 동생들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많은 아이지만, 여느 아이들처럼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한다.
2015년 <꼬마악어 타코>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고, 2017년에는 <걸어가는 늑대들> <새로운 가족>을 펴냈다.
2018년에는 10대 일러스트 공모전에 당선돼 6개월간 연재 후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를 출간하고 개인전을 열었다. 인스타그램 @jeon2soo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 수집 공모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 ▶ 일제강점기 간척, 해방 후 간척사업 관련 자료
- ▶ 간척지에서 삶을 개척해 온 주민들의 생활유물
- ▶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기록물, 유거물, 기념물

공모기간 _ 2020. 07. 10(금)~10. 10(토)

시상내용

구분	선정	시상품	비고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100만원	새만금개발청 청장상
우수상	3명	상금 각 50만원	전라북도 도지사상
장려상	10명	상금 각 20만원	시정(군수)상(군민 4, 김제 3, 부안 3)
특선	15명	상금 1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7)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상(8)
입선	30명	상금 5만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상
계	61명	1,000만원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접수 및 문의

- ▶ 접수 _ 팩스, 전자우편
- ▶ 신청서 다운로드 _ 전주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www.jj.ac.kr/sanhak/>)
- ▶ 접수처 _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수집공모추진팀
(전화 063-286-3005 / 팩스 063-286-3007)
- ▶ 전자우편 _ hangoyeon@hanmail.net

공모선정 자료 전시회

▶ 2020. 11. 01~11. 30(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홍보관)

주최 새만금개발청 후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주최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①과 기저질환자^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